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도서관 인문학, 삶을 리드하다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13:40

장 소 | 엑스코 322호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한국도서관협회



목 차

【들어가는 말】	1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을 열며	3
【포럼 개요】	5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개요	7
【강연】	9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도서관다움’의 반추	11
▶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례 발표】	25
공동탐구방법을 통한 독서토론	27
▶ 신득렬 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독서(獨書)에서 공서(共書)로	40
▶ 신기수 승례문학당 대표	
【연구 발표】	73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연구 성과 분석	75
▶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을 열며

“도서관 인문학, 삶을 리드하다”

‘도서관 인문학 포럼’은 2013년부터 시행해온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내실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어 왔습니다. 벌써 4회째 접어든 ‘도서관 인문학 포럼’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화기관으로써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전제로 도서관이 국민들의 생활 한 가운데에서 보다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활용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문화중심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더욱 다양해진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야 역시 그 범위를 확장시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로 모아지곤 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년 ‘도서관 인문학 포럼’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의견과 제언들은 치열하게 제시되곤 하였습니다.

한해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전문학자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기도 하였고, 또 한해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가했던 참가자와 강연자, 그리고 담당 사서들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실제적인 변화의 양상들을 이야기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간의 ‘도서관 인문학 포럼’의 시행을 거치면서 저희 사업본부는 도서관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도서관의 발전과 인문학의 저변확산,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기관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을 개최하면서 다시금 그 열정의 자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에서는 “도서관 인문학, 삶을 리드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포럼이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국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주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국민들의 생활공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도서관으로 국민들이 찾아주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성찰과 자아에 대한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으려면 이제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역할과 방향은 국민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른바 ‘인문학의 생활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인문독서를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나아가 자신의 느낌과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토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도서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좋은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독서와 토론의 공간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을 때, 인문독서의 생활화는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에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속성·정착과 확산·지역성과 차별성·유형과 모델의 개발’ 등은 이러한 인문독서의 생활화와 그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할 명제라고 사업본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국민들의 인문독서의 생활화에서 나아가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융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본부



포럼 개요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개요

- 주제 : 도서관 인문학, 삶을 리드하다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3:40
- 장소 : 엑스코 322호(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도서관협회
- 진행순서

시간		내용	주제 및 발표토론자
10'	13:40~13:50		개회 및 인사말
30'	13:50~14:20	강연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도서관다움’의 반추” 윤희운(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20'	14:20~14:40	사례 발표	“공동탐구방법을 통한 독서토론” 신득렬(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	14:40~15:00		“독서(獨書)에서 공서(共書)로” 신기수(승례문학당 대표)
10'	15:00~15:10		휴식 및 장내정리
20'	15:10~15:30	연구 발표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연구 성과 분석”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0'	15:30~17:00	종합 토론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을 위한 키워드와 그 고민” - 정착과 확산, 지속성, 지역성과 차별성, 유형성 진행 : 정현태(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본부장) 토론자 : 김수경(창원문성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태희(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 나병준(인천광역시율목도서관 관장) 오지은(광진정보도서관 관장) 발표자 : 신기수(승례문학당 대표) 신득렬(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윤희운(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	17:00~17:10		질의응답
	17:10		폐회



도서관 **기쁨의**
인문학

강연

-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도서관다움’의 반추
윤희윤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희윤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전국도서관대회 기조강연

별관별

I. 인문학의 본질과 풍경

1. 본질과 범주

- ❖ 본질 : 인간의 삶과 사고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유의미한 삶'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 방법론 : 경험적 접근법에 의존하는 자연·사회과학과 달리, **사변적, 분석적, 비판적 방법을 두루 적용함**
- ❖ 범주 : 인류학, 고전학, 법학, **문학, 역사, 철학**, 문예학, 윤리학 등이 포함되며, 확대하면 예술·종교·경제·정치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정신과학이 귀속됨
- ❖ 그럼에도 중심부에는 **문사철**이 존재함. **문학은 상상력을 다루고, 역사는 사건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며, 철학은 모든 대상의 근원과 의미를 따지는 학문으로서 비판적 사고의 원천임**

2

별관별

2. 풍경과 화두

- ❖ 강단 : **인문학 위기, 기초학문 고사**로 아우성
- ❖ 사회 : 인문학 열기가 전국을 배회함. 기업가에서 노숙자까지 인문학을 거론하며 민간단체, 평생학습 및 문화시설,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무수한 조어 (**복지인문학, 김치인문학, 건축인문학, 힐링인문학, 통일인문학, 음식인문학, 창조인문학, 디지털인문학, 고전인문학, 예수인문학, 동네인문학, 점심인문학, 도시인문학, 거리인문학**)가 난무함
- ❖ 인문학의 위기와 열풍, 양단을 질주하는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 도대체 인문학은 무엇인가? 구두선인가, 금과옥조인가?
 - ✓ 왜 대학은 인문학 위기를 절규하는데 사회는 인문학에 열광하는가?
 - ✓ 인문학의 대중화 현상인가, 고급인문학에 대한 대중인문학의 도전인가?
 - ✓ 그 열풍의 **진원지**와 **속살**, **실상**과 **허상**은 무엇인가?
- ❖ 경계를 초월한 인문학이 거리를 확보하고 **공공도서관에 상륙하고 있음**

3



열광하는

3. 열풍, 그 배경과 동인

관점	배경과 동인	
학문적 측면	- 인문학은 인간 내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문답을 사용하는 활동 - 표피적 현상 파악을 거부하는 대신에 다차원적 행간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허용함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지적 문화수준 제고, 독서생활화 촉진, 평생학습사회 조성, 민주시민성 함양, 인문정신문화 확산 등에 적극적임
거대 담론적 맥락	글로벌화 및 동시성 시대에 편승하여 여러 지식정보의 조합 내지 연결성을 강조하고 행간을 파악하려면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함	사회문화적 장치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은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문학 강좌의 거점으로 인식됨
미시적 담론	- 물질적 풍요에도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 이유를 인문학에서 찾으려는 의지가 강함 - 자연과 생명에 대한 원초적 이해, 인간에 대한 외경심, 삶을 반추하면서 근원을 살피려는 욕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자존감 회복 등	독서와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인문학적 호수에 닿아 있어 그 길목에 위치하는 도서관의 인문학적 역할은 중요함
사회경제적 파장	- IMF 외환위기가 인문학 열풍의 결정적 계기임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고, 인문학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함	도서관계도 '인문학'을 선치시킨 각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설·제공하기 시작함
정신문화적 진화	- 고도 압축성장에 따른 외형적 통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신문화적 지표는 미숙·상태(부동산 투기, 사교육 열풍, 무질서, 편법과 탈법의 난무, 개인적 및 집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 - 모두 정신문화적 자양분인 인문교양 결핍이 초래하는 역기능임	인문학국을 표방한 정부는 공공도서관을 인문정신문화의 거점으로 지목·지원함.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대표적임

4

열광하는

4. 열풍에 대한 비판과 경고

1. 한반도를 점거한 **가짜 인문학**을 몰아내자 :

[리뷰] 인문학 아닌 인문학에 철퇴를 내리다.

...“지금 한국의 인문학적 상황은 어떠한가? 실로 활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나 인문학이 넘실대고, 누구라도 인문교양을 주목한다. 당장 사회의 음지에서 인문고전을 손에 들고 술한 독서 멘토, 인문 멘토들이 찾아간다. 마치 인문학이 이제 한반도를 점거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 <인문학 페티시즘> 본문 9쪽 중에서

“마치 인문학이 한반도를 점거하고 있는 듯하다”며 약간의 과장을 섞긴 했지만, 저자의 지적은 타당하다. 실제로 **인문학을 표방하지만, 인문학보다는 시류에 편승해 오로지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준 이하의 책들이 출판시장을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인문학은 진짜라는 수사를 붙여야 할 정도로 더럽혀졌다. 저자는 이러한 “도구 혹은 장식이 되어버린 인문학에 대한 열광(18쪽)”을 가리켜 **'인문학 페티시즘'**이라고 명명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296

5



별관별

2. 거리의 인문학 10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나?

10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10년의 경험은 낙관과 안주의 근거이기보다는 새로운 성찰의 계기이다. 그간의 성과에 도취해선 안 된다. 지나친 긍정은 외려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흐를 수 있다. 긍정주의의 도그마에 빠져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은폐해선 안 된다. 내외부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그게 바로 인문정신이다. 절망의 인문학, 이쯤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리의 인문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획이었는가? 두 말할 것도 없이 **거리의 인문학은 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자활과 자립의 의지를 북돋우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목적은 앞서 소개한 일화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전혀 엉뚱한 현상도 발견하게 된다. 일테면 이런 진술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거리의 인문학의 최대 수혜자는 인문학 그 자신이거나 강의를 참여한 인문학자들이다."** 대체 무슨 말인가. 문학평론가 오창은의 <절망의 인문학>(이매진 간, 2013)

<http://ppss.kr/archives/35684>

6

별관별

3. 인문학 열풍을 곱씹어보아야 할 이유

: 경영학이 되어버린 인문학의 변신 이야기

... 물론 그 모든 것의 압권은 혁신의 리더로 모두의 숭배를 받았던 경영의 구루인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 타령일 것이다. 그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상품들은 모두 인문학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염을 토한 바 있었다. **결국 인문학은 비판은커녕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을 위한 지식, 경영의 지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문학 열풍은 곧 경영학 열풍이라 말해야 옳다.** 상품이든 서비스이든 아니든 노동자 자신이든, 그것이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한 때 경영학이라는 지식의 소관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인문학으로부터 배워야 할 일이 되었다. 물론 그 때의 인문학이란 인문학이란 외관 아래에 몸을 감춘 경영학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문학 열풍이란 말은 기꺼이 고쳐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문학 껍데기라고 말이다.**

<http://www.homopop.org/log/?p=328>

7



관련링크

4. 인문학의 상품화, 그 위험한 유혹

한국 사회의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서는 방식은 도처에서 남용되고 있는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상품화를 통한 맹목적 대중화에 의해서가 아니다. 가정에서, 공교육에서, 기업에서, 정치에서 '왜'라는 물음표를 존중하고, 그 '왜'에 대한 잠정적 해답들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존중하면서, 치열하게 씨름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계적 암기가 전제되는 입시 중심 사회, 무차별적 성과와 순위를 매기는 성과 중심주의 사회, 요약과 명쾌한 해답에 열광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문학 열풍'은 오히려 '인문학의 소멸'을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의 대중매체가 이윤 극대를 위한 '인문학 상품화의 유혹'에 맹목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현상이 위험한 이유**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32106005&code=99030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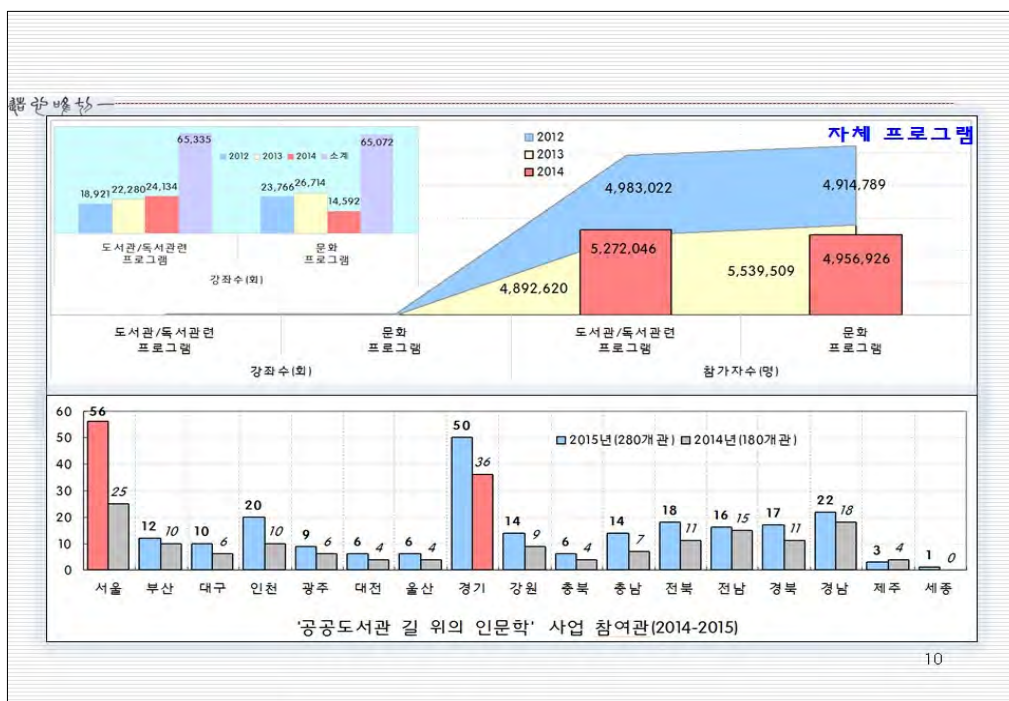
II. 도서관 인문학의 혈주소와 비판

관련링크

1. 도서관 인문학의 현주소

- ❖ 대다수 도서관은 '인문학'을 주제로 내세운 각종 프로그램 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 ❖ 그 유형은 개별관이 자체 기획·진행하는 인문학 및 관련프로그램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음
- ① 전자는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인문학 단체 등)과 협업형태로 진행하는 사례로 나눌 수 있으며, 대체로 강좌중심임
- ② 후자는 전국적 사업으로 2013년 시범사업(서울을 제외한 전국 121개관 참여)에 이어 2014년 본격사업에 180개관(강연 723회, 탐방 570회, 후속모임 245회 등 실시회수 총 1,538회, 참가인원 총 48,193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280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연·탐방·후속모임의 결합형임(2016년은 320개관)

9



10

프로그램별

2. 도서관 인문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작가 임무영 (2015)

인문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인문학은 도서관에 있지 않다. 여러분이 인문학이고, 여러분의 삶이 곧 인문학 현장이다'** 고 직격탄을 날림

❖ 인문학자 김경집 (2015)

요즘은 도서관의 대시민서비스 활동이 증가했고 시민 반응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첫째, 대부분 강좌가 마치 **'우리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열된 느낌을 준다. 둘째, **인문강좌의 후속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왜 인문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따르지 않고 있다. 그저 적당한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 이제는 얹이 삶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11



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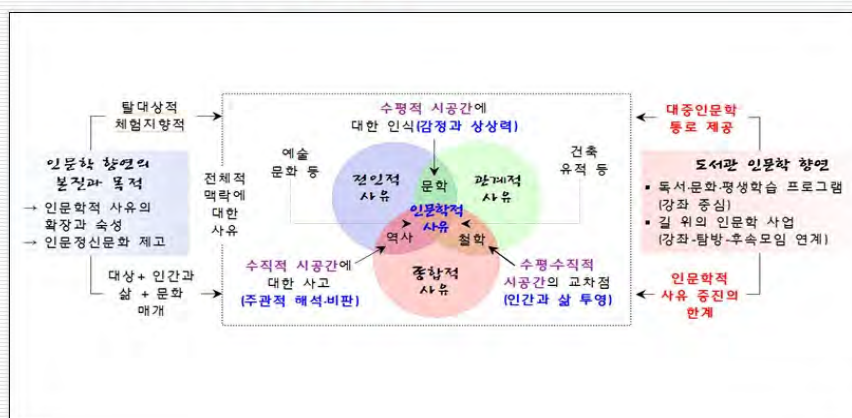
❖ 경향신문 문화에디터 조운찬(2014)

대중인문학이 인문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지는 의문이다 . . . 일부에서는 사진 찍는 법, 허브 키우는 법 등 백화점 문화강좌에 어울릴 법한 강좌를 '인문학'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놓고 있다 . . . 사회에서 유행한다는 인문학은 기실 '실용 인문학' 이다. 실용 인문학은 인문학의 외형을 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자기계발 공부와 다르지 않다 . . . 이런 인문학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실용의 강조는 결국 인문학의 본령을 해친다.

12

평론가

3. 도서관 인문학의 기여와 한계



13



III.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정론

책 읽는 문화

1. 도서관의 정체성 및 존재이유, 그 원천

Our 2014 research tells us that the library brand remains firmly grounded as the "book" brand.

In fact, from 2005 to 2014, the perception of the book brand has cemented. Sixty-nine percent (69%) of online users indicated that their first thought of a library was "books" in 2005, 75% in both 2010 and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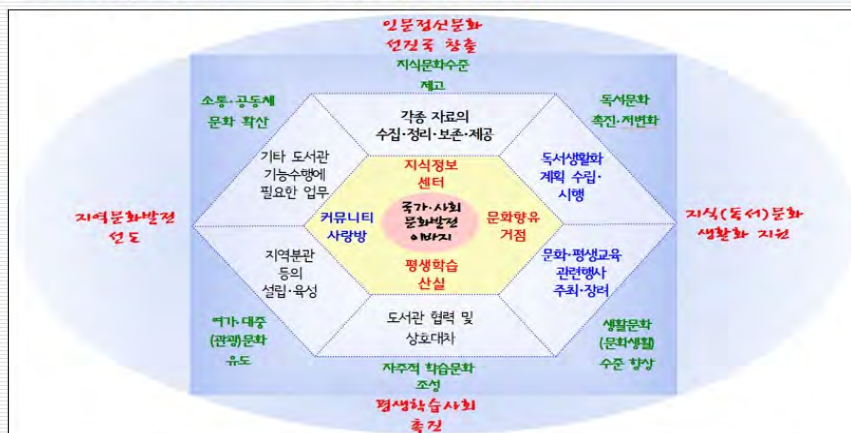
	TOTAL RESPONDENTS	AGE 16-24	AGE 25-35	AGE 36-50	AGE 51-59	AGE 60+
BOOKS	75%	70%	80%	79%	74%	75%
INFORMATION	12%	18%	9%	8%	11%	8%
BUILDING (ENVIRONMENT)	6%	8%	5%	5%	4%	6%
READING	3%	2%	2%	3%	4%	4%

What is the first thing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a library?

OCLC. *At a Tipping Point : Education, Learning and Libraries(2014)*, p.51

책 읽는 문화

2.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지형과 연계구조



윤희윤,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답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2016.3), p. 10.



책 읽는 문화

3.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지향성



16

책 읽는 문화

4.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여와 변용

인문학의 목적	인문적 소양의 골자	공공도서관	
		인문학적 기여	초월성과 변용성
인간과 삶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인문적 소양 : 인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total competency) ① 지적 역량(독해력) ② 정서적 역량(공감과 소통능력) ③ 양자를 아우르는 직관적 역량(논리성과 판단력)	- 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지적 역량 확충 기여 -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소통능력과 정서적 역량을 높이는 데 일조 - 독서·문화·평생학습 등 다양한 인문학 강화를 주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총체적 역량 함양을 지원	- 인문학의 본질과 존재이유 :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참된 삶을 성취하기 위한 학문'으로 재해석되어야 함 - 대상적 측면 : '인간의 가치와 광경된 현상을 생각하도록 통찰력'으로서 문사현을 초월해야 함 - 시제 : '과거를 바탕으로 성찰된 미래를 현재화'해야 함 - 궁극적 목적 : '현재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용성을 강조해야 함

17



도서관

5.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충실화 전략(1) : 정체성 측면

관점	진단과 평가	충실화 전략
정체성 측면	- 인문학의 본령은 대중의 인문학적 사유 폭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주체적 인문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 반면 모든 공공도서관이 본질적 정체성인 지식정보센터를 기반으로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공리는 지역 사회의 지적 갈등과 수요, 문화생활적 기대와 욕구, 평생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시설·공간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임 - 인문학 본령에 대한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진단함	- 본질적 정체성에 소홀한 채 인문학 대중화라는 시류에 편승하는 행태는 인문학 본령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인문학 콘텐츠를 충실하게 개발·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해야 함 - 인문학 콘텐츠 부실, 인문학 강좌 및 관련장서의 연계성 부족을 방치한 채 인지도가 높은 강사(작가, 저술가, 인문학자, 연예인, 향토사학자 등)를 섭외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문화유적·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인문학 향연의 전부로 인식한다면 착각임 - 강좌와 탐방은 인문학적 사유를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며, 비록 다양한 인문콘텐츠를 독서활동 및 평생학습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대중의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18

도서관

5.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충실화 전략(2) : 사유적 관점

관점	진단과 평가	충실화 전략
사유적 관점	- 인문학은 대상 자체의 분석과 객관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초월하여 인간이 투영되고 문화가 매개되는 맥락 전체에 대한 사유를 요구함 - 인문학적 사유는 탈대상적이고 체험 지향적임. 대상에 대한 단편적 인식이 아니라 대상과 연계된 삶의 지평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요구하며 문화가 수반되거나 매개되는 종합적 사유임 - 공공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함정과 한계가 내포되어 있음	- 자체적 인문학 프로그램은 강좌 비중이 매우 높고, 협업형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향연은 '강연·탐방·후속모임의 결합형태'임 - 그러나 참가비 지불의지가 있는 수강생이 강좌를 듣고 탐방장소를 체험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을 뿐 자발적 후속모임을 통한 토론과 성찰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음 -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이 대중인문학의 통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인문학의 지향성인 전인적, 관계적, 종합적 사유를 증진시키거나 여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탈대상적, 체험지향적, 인간과 문화가 매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함

19



관람평

5.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충실화 전략(3) : 미시적 담론

관점	진단과 평가	충실화 전략
미시적 담론	- 대중에게 제공하는 독서회 운영과 독서프로그램,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강연회, 전시·공연 등은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하며, 그 중장기 외부효과가 인문학의 본령에 도달해야 함 - 그럼에도 저마다 장서 및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약한 '인문학'을 내세운 강좌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별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역설은 각종 프로그램과 인문학 향연의 궁극적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키고 무게중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조장하며, 특히 독서프로그램을 인문학에서 분리할 경우 트릴레마(trilemma)로 이어짐	- 각종 프로그램과 인문학 향연은 역설과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음 - 모든 도서관이 제공하는 독서·문화·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는 독서 생활화, 자주적 평생학습 촉진, 문화생활 향유, 민주시민성 함양,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간다운 삶과 연계되어야 함 -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시류를 반영한 인문학 향연은 모두 인문학적 사유와 삶을 위한 '하이부동' 프로그램이므로 인문학 콘텐츠의 충실화를 통한 독서생활화 및 평생학습의 촉진을 출발점으로 삼고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인문정신 강화를 위한 인문학 향연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20

관람평

5.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충실화 전략(4) : 대상적 측면

관점	진단과 평가	충실화 전략
대상적 측면	- 인문학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경우, 2014년에는 약 20.7%(180개관)이, 2015년에는 전체의 약 30.1%(280개관)에서 진행되었음 - 그러나 참가자의 절대 다수가 일반시민이며, 대중인문학의 최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함 - 특히 노인의 경우,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초고령 사회 도달기간도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는 예측,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분석한 노인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율이 2.9%로 극히 낮은 반면에 노후(여성) 취미여가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함	-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에 내재된 불편한 진실, 즉 대다수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주요 대상이 일반대중임 - 최근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되는 시류를 반영해야 함 - 공공도서관이 대중인문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특히 노인 지식층을 겨냥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21

별관부속

5.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충실화 전략(5) : 내용적 측면

관점	진단과 평가	충실화 전략
내용적 측면	- 인문학의 본질은 작금 및 미래에 대한 사유의 길과 유의미한 통찰을 제시할 뿐, 그것을 소화하는 문제는 대중의 몫임. 독서와 탐구를 통하여 끊임 없는 질문하는 인문정신을 강조해야 함 - 그럼에도 인문진흥 정책은 저명인사 중심의 강좌, 단발성 강의로 인문학적 사고와 실천을 통한 시민의 생활이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역부족이다'는 비판,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교육부 주관의 소외계층 및 일반시민을 위한 인문강좌, 대학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센터의 인문강좌 등과 차별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는 고난도 철학 및 고전 등의 고답준론, 신변잡기로 가득한 언어적 유희, 편향성 이데올로기의 설파, 시중의 관광상품과 유사한 답사와 탐방 등을 경계해야 함. 대중이 인문학 강좌에 참여공감하고 탐방하더라도 스스로 인문독서를 통한 현실적 문제를 사유·비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인문학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공공도서관이 대중인문학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려면 현실적 약점을 보완하고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적 충실화 및 외연 확대에 주력해야 함 ① 도서관 인문학 콘텐츠의 독서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성추행, 가족과 건강, 학교 폭력과 따돌림,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의 인문학적 해결형 프로그램 ②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인문지식 습득프로그램(도서관 시설과 연계한 정보기술 응용, 인문지식 체험실 운영) ③ 인문치유 및 카운슬링(자살, 이혼, 경력단절, 사업 실패 등) 프로그램 ④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새터민, 장애인, 수형자) 특화 프로그램 ⑤ 생애주기별 연계형 프로그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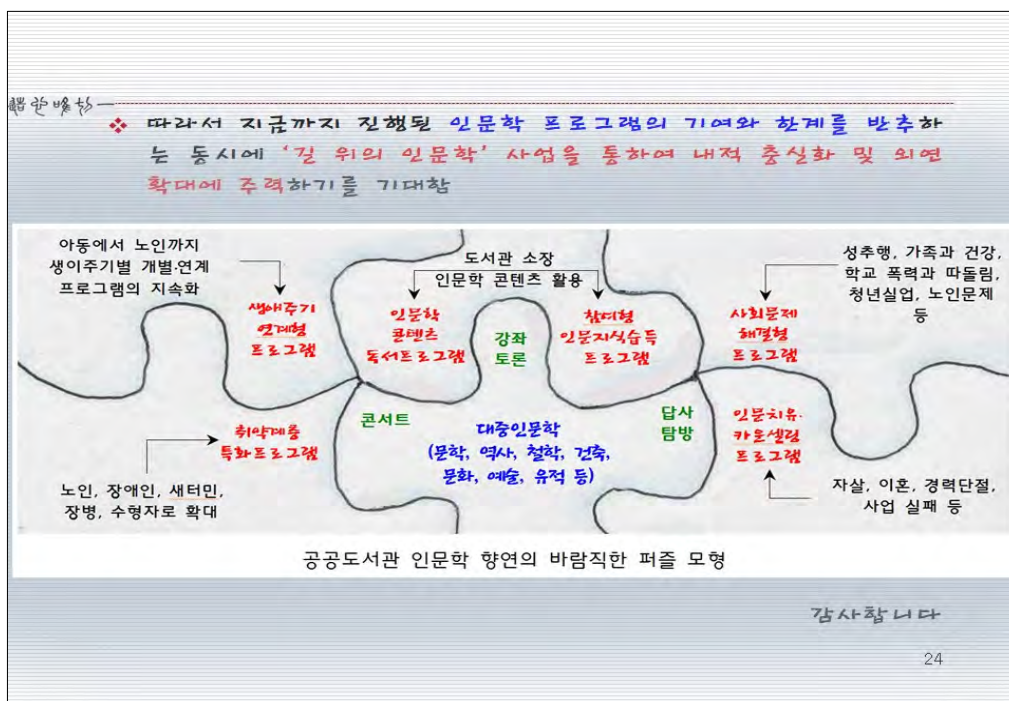
22

별관부속

IV. 결론 : 인문학 향연의 베이스캠프를 위하여

- ❖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지식문화적 생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인문학 향연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상품화와 경제탐욕이 추구하는 상업주의, 감성적 언어로 포장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일시적 공감에 방점을 두는 감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가부장적 계몽주의를 경계**해야 함
- ❖ 이러한 함정을 회피하지 않으면 유명강사 의존형 강좌, 상업주의 거품, 행사위주 내지 관광상품화 등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만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인문학적 사유와 통찰이 배제된 어설픈 초상을 빚어낼 것**이며, 그 부메랑 효과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및 존재이유가 약화될 것임

23





사례 발표

- 공동탐구방법을 통한 독서토론
신득렬 | 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독서(獨書)에서 공서(共書)로
신기수 | 숭례문학당 대표





공동탐구방법을 통한 독서토론

신득렬 | 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언

직업주의가 대학을 지배함에 따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위축되어 왔다. 직업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 매력으로 인해 사회에는 교양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전문가, 기술자, 기능인이 환대되고 있다. 공동체 어디에도 교양인을 채용하겠다는 기관이 없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대학 내의 인문학의 열기는 식어가고 대신 대학 밖에서 많은 수의 인문학 교양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방송국, 신문사, 금융기관, 백화점,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인문학 명사들을 초청하여 강연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인문학 강의를 듣지만 수동적 청자 또는 독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스스로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내재화시켜 생활에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길 위의 인문학’ 4년차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명사에 의한 강연보다는 참여자들이 직접 책을 읽고 사색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전국 33개 공립도서관에서 인문고전 독서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를 염원한다.

필자는 미국의 ‘위대한 저서 재단’(Great Books Foundation, GBF)이 만든 ‘공동탐구’(shared inquiry) 방식을 원용하여 지난 25년 동안 서양의 ‘위대한 저서’(great books) 독서토론회를 시행하였다. 공동탐구 방식의 내용, 규칙,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관심있는 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II. 독서토론

1. 토론, 담소, 대화의 개념

토론은 학문탐구의 오래된 방법인 동시에 교육의 방법이다. 플라톤의 저서는 토론이 이 두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쓴 『향연』(Symposium)은 사랑을 주제로 한 치열한 토론을 보여준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즉석에서 제시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랑관을 심도 있게 펼쳐 보인다.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이 평소에 독서, 사색, 대화로 단련되지 않았다면 이런 뛰어난 토론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사용되는 말들도 상이하다.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과 목적에 따라 여러 용어들이 사용된다. 그러한 용어들 중에서도 대화(conversation), 담소(dialogue), 그리고 토론(discussion) 등이 중요시된다.

대화는 결론이나 합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며 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행위를 삶의 일부로 생각한다. 결론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유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 대화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모든 종류의 일방적인 과정들은 대화가 아니다. 대화는 사유의 교환이며, 참여자 모두가 부담 없이 사유활동을 즐기는 과정이다.

담소는 두 사람 사이에 전개되는 활동이다. 담소는 차원 높은 지적 내용을 가질 수 있지만 대체로 개인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카즈피데스는 다른 차원에서 담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교육은 규범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대화나 토론보다는 담소가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즉 담소는 어리석은 잡담, 토론, 논쟁, 대화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담소는 진지하고 도전적이고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Kazepides, 2010, 92).

토론은 주어진 과업 때문에 대화의 요소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론은 참여자들이 당면한 문제나 주제를 해결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



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토론은 교수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된다.

대화, 담소와 토론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다. 이들은 학교와 대학은 물론 여러 사회관계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교육에서 이 방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놀라운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허친스는 교육방법으로서 토론과 대화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는 지식의 획득은 토론의 방법과 발견의 방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전자는 오랜 전통적인 방법이고 후자는 과학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허친스는 토론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론은 한 가지 이상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토론에 의해 전리에 도달될 수 있다는 관념은 특히 실제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수의 견해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채택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채택되어야만 하는 문명은 정제되어질 운명에 처한 문명이다. 그것은 어느 사회이든지 가장 귀중한 소유는 소수, 심지어 한 사람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토론과 비판이 없는 다수지배는 독재이다(Hutchins, 1953b, 90).

토론은 학문적인 탐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허친스의 지적대로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론은 질문, 의견제시, 논평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을 통하여 최선의 견해가 추론되어지는 과정이다. 최선의 견해가 출현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다.

허친스는 실험과 관찰 등의 과학적 방법이 발견과 교수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한 방법 못지않게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고 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판, 토의, 질문, 논박이 수업의 참된 인간적인 방법들이다. 산파술과 마찬가지로 교수는 하나의 협동적 기술이다. 소크라테스적인 대화는 학생이 아동이든 성인이든 교육학의 위대한 귀감이다.”(Hutchins, 1953a, 96-7)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학교와 대학 그리고 성인교육기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은 소규모의 집단에서 가능해진다.

2. 독서토론의 개념

학교에서의 토론은 독서토론이 중심이 된다. 일반인들은 당면한 실천적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지만 학습자들은 현실과는 다소 초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보다는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독서토론에서 위대한 저서가 더 큰 주목을 받는다.

독서토론은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참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텍스트를 혼자 읽을 때는 주관적이고 편협한 이해에 그칠 우려가 있다. 독서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해가 편협하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참여자들의 견해가 자신의 편향된 이해를 교정해주었기 때문이다.

토론의 방법을 교육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허친스(R. M. Hutchins)와 아들러(M. J. Adler) 등이 만든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Great Books Program, GBP)이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난 2,800년 동안 서양의 위대한 작가 74명의 저서 44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GBP는 참여자들이 10년에 걸쳐 고대, 중세, 근대의 저서를 선정하여 연차별로 읽도록 되어 있다. 1991년에 설립된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에서는 이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저서들이 세상에 나온 순서대로 12년에 걸쳐 읽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두 접근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공동탐구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Ⅲ. 공동탐구

1. 공동탐구의 개념

1987년 GBF는 GBP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독서토론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탐구입문』이라는 책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서 재단은 “공동탐구는 주



어진 작품을 주의 깊게 읽은 참여자들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려는 활동”(The Great Books Foundation, 1987, vii)이라고 정의하였다.

1992년에 나온 제3판에는 약간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공동탐구란 하나의 텍스트가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독특한 학습방법이다. 이 탐구는 본래 능동적이다. 이것은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충분한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건전한 추리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The Great Books Foundation, 1992, ix).

재단이 지적인 대로 이 독서토론 방법은 독특한 측면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독서토론회는 텍스트를 체계없이 선정한다. 참여한 회원들의 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준거 없이 결정된다. 토론을 거쳐 선정에 합의하지만 흔쾌하게 만족하지 못한다. 읽고 토론하는 방식도 능동적이지 못하다. 모두가 텍스트를 읽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장별로 분담하여, 배정받은 사람이 정독한 후 ‘발제’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논평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어오지 않거나 정독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발제자가 친절하게 텍스트 내용을 요약, 설명, 비판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로 인해 독서토론회는 종종 사라지기도 한다.

공동탐구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아주 다른 방식을 택한다. 10년 또는 12년간 읽을 독서목록이 정해져 있어서 무슨 책을 읽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토론은 두 명의 공동지도자들(co-leaders)에 의해 진행된다. 공동지도자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이 제기한 ‘해석적 질문’(interpretive question)에 대해 함께 탐구한다. 이 재단은 공동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동탐구의 성공은 지도자와 참가자들의 특별한 관계에 달려 있다. 공동탐구 지도자들로서 여러분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그들 자신의 해석에 도달하도록 참가자들을 안내한다. 여러분은 사고를 하게 하는 질문을 하고 참가자가 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추수활동을 함으로써 이 과업을 수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마음의 융통성과 관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발달시키는데 도와줄 수 있다. 공동탐구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념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법, 반대되는 논증들의 장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처음 가졌던 견해들을 수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공동탐구법은 참가자가 정열적인 평생 학습자는 물론 유능하고 책임 있는 시민들이 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숙고하는 대화와 개방적인 논쟁을 발달시켜 준다(Ibid., ix).

공동탐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려면 공동지도자들은 물론 토론 참여자들이 먼저 ‘해석적 독자’가 되어야 한다. 해석적 독자가 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독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으로 독서하는 사람은 텍스트에 밑줄을 긋거나 여백이나 다른 곳에 기록하면서 읽는다.

공동지도자들은 노트된 부분들을 읽으면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해석적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해석적 질문이란 두 개 이상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을 의미한다. 토론 참여자들은 해석적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정해진 텍스트 안에서 찾아야 한다. 다른 자료들을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제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텍스트를 정독하게 된다. 참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제시되므로 토론은 자연히 활기를 띠게 된다.

2. 독서토론의 규칙

독서토론이 활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참여자들이 활동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잘 지켜야 한다. GBF는 오랜 경험과 숙고를 통해 독서토론의 규칙들을 만들었다.



(1) 좋은 토론환경 조성의 규칙

토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 규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토론의 진행은 물론 시설과 규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토론실은 공동지도자들을 향해 바라보는 전통적인 강의실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된 방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토론자들이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환대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독서토론에 적합한 인원으로는 10-15명이 적합하다. 15명이 넘으면 발언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10명 이하이면 참석자들이 발언을 자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시험과 평가가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결석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론의 적합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약간 늘려 잡을 필요가 있다.

좋은 독서토론이 이루어지려면 텍스트의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는 ‘위대한 저서’ 또는 고전을 선택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는 신간 서적,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을 텍스트로 했을 경우 많은 경우 자주 실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는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독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2) 독서토론 준비를 위한 규칙

GBP에 참여하기로 한 토론집단은 ‘해석적인 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읽고 노트를 해야 한다. 책을 읽고 얻은 반응을 여백에 기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독서를 거듭할수록 여백의 기록은 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는 다르게 감상되기 때문이다. 필기구의 색깔을 달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독서는 책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독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이다. 독서는 반드시 ‘기록하는 일’과 병행되어야 한다. GBF는 노트를 잘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Ibid., 3).

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저자의 논증이 불명확할 때 그 부분을 노트한다. 토론이 진행될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발표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왜 주의를 끌게 되었는지, 저자의 논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여백에 기록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것이다. 이러한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③ 강력한 느낌을 받은 것을 기록하십시오.

텍스트는 참여자에게 감동을 주거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여자는 저자의 논지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기록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참여자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텍스트를 읽은 사람은 세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게 된다. 즉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공감 또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 그것들이다. 이 노트를 중심으로 토론함으로써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느낀 점 등을 상호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고 보완하게 된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상의 세 가지 노트한 부분을 가지고 해석적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3) 참여자 모두를 위한 규칙

GBF는 독서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네 가지 ‘공동탐구의 규칙’을 제시하였다(Ibid., 26).



① 작품을 읽은 사람만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참여자들이 읽고 있는 저서에 관해 근거가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저서를 읽지 않은 사람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토론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건전한 판단도 할 수 없다. 이 규칙이 준수되면 책을 읽지 않은 참여자는 다른 별도의 좌석에 앉아 토론을 청청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② 토론은 읽은 작품을 해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른 책이나 영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가치나 의견은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적합성을 갖지 못하며, 다른 참여자들을 토론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③ 참여자 자신의 증거로서 지지될 수 없다면 외부의 의견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참여자들은 관념들을 공유하지만 참여자 개인은 스스로 사고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 즉 배우자, 부모, 텍스트, 백과사전 등에 의존한다면 그들 자신의 관념과 통찰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능동적이고 해석적인 독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④ 공동지도자들은 질문만 할 수 있고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 된다

공동지도자는 참여자들보다는 작품을 더 많이 읽고 탐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는 공동지도자의 대답을 자신의 것보다 중요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 공동지도자는 질문만 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지도자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며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해석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재단은 네 개의 규칙을 잘 준수하면 토론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규칙들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동토론을 위한 4가지 규칙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지도자는 이 규칙을 기록한 메모를 앞에 놓고 수시로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4) 공동지도자를 위한 규칙

GBP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토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명의 공동지도자를 두는 것이다. 공동지도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공동지도자 훈련과정을 이수한 비전문가이다. 지도자가 두 사람인 이유는 좋은 토론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공동지도자들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만나 각자가 만든 해석적 질문들을 서로 비교, 평가하면서 더 좋은 질문을 선택하는 절차를 갖는다.

공동지도자들 중 한 사람은 사회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토론과 질문의 내용과, 참여자들 중 누가 발언을 많이 하는지,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기록한다. 두 시간의 토론 중 한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역할을 서로 바꾼다. 공동지도자들은 토론의 규칙을 이해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공동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해석적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관념들과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GBF는 공동지도자들이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였다(The Great Books Foundation, 1992, 30-33).

①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토론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해석적 질문을 받은 참여자는 텍스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공동지도자는 질문을 한 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침묵이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길지 않다.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천천히 진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석적 질문과 답을 적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참여자들의 논평을 신중히 들으시오

참여자의 논평을 신중히 그리고 정확히 들어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다. 공



동지도자가 참여자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 참여자가 자신이 제시하는 관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경청해야 좋은 추수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아이디어를 적기 위해 좌석도를 규칙적으로 활용하시오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는지 기록하면 참여자의 토론기여도를 알 수 있다. 좌석도(seating chart)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약을 알 수 있고 공동지도자는 누구에게 질문과 대답의 기여를 주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④ 참여자들이 서로 말하도록 격려하시오

공동지도자와 참여자의 대화는 물론 참여자들끼리 활발하게 대화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욱 편안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공동지도자는 참여자들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⑤ 관념들을 서로 그리고 기본적 질문에 관련시키시오

참여자들이 관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질문을 통해 토론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기본적 질문은 탐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⑥ 자주 텍스트로 돌아가시오

토론을 하다보면 종종 주제에서 이탈하게 된다. 토론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공동지도자는 텍스트로 돌아가도록 자주 주지시켜야 한다.

⑦ 참여자들이 공동지도자의 질문들 안에 있는 가정들에 도전하도록 자극하시오

참여자들이 공동지도자가 제시하는 해석적 질문에 대해 반길 수도 있고 난처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제시된 질문이 갖는 가정들에 대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참여자 모두가 기여할 기회를 주시오

모든 참가자가 발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토론을 지배하도록 해서 안 된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들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⑨ 종종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s)을 하시오

참여자 발언이 불분명하거나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후속질문을 해야 한다. 추수질문이 없으면 참여자는 자신의 발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GBF가 제시한 규칙들은 지도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실행해 본 경험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위의 규칙들은 GBF가 아닌 다른 독서토론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준수하려면 공동지도자들이 훌륭한 공동지도자가 지도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실제로 토론경험을 많이 가져보아야 한다.

IV. 결론

교양교육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독서가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독서는 문명에 입문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여행과 명사와의 대화도 중요한 교양교육의 방법이지만 대체로 많은 경비가 든다. 독서는 적은 경비로 평생에 걸쳐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영속적인 독자가 되려면 독서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독서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독서의 습관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독서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편향된 독서가 되기 쉽다. 독서토론회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기에 자신의 이해, 관점, 가치관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지도록 해준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독서토론회를 통해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가 확장하고 공감한 관념들에 헌신하게 되면 ‘학습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신득렬(2002). 『위대한 대화: R. M. Hutchins 연구』. 대구: 계명대 출판부.
- _____(2016). 『교양교육』. 인천: 겨리.
- Adler, M. J. and C. Van Doren(1972). How to Read a Book: The Classic Guide to Intelligent Reading. Revised and updated edi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Fadiman, C. and J. S. Major(1997). The New Lifetime Reading Plan: The Classic Guide to World Literature. 4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 Great Books Foundation(1987). An Introduction to Shared Inquiry.
- Great Books Foundation(1992). An Introduction to Shared Inquiry. 3rd ed.
- Hutchins, R. M.(1953a). The Conflict of Educ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_____(1953b). The University of Utopi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zepides, T.(2010). Education as Dialogue.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Morland, W. D. and E. H. Goldenstein(1985). Pioneers in Adult Education. Chicago: Nelson-Hall.

독서(獨書)에서 공서(共書)로

신기수 | 승례문학당 대표

그간 독서운동이 너무 계몽적인 건 아니었을까. 재미와 의미, 둘 다 쫓을 수는 없을까? 이왕이면 재미가 먼저이면 더 좋겠는데 말이다.

학습공동체 〈승례문학당〉의 기원은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rws 인스티튜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서가 책(Reading)만으로 끝나지 않고, 글(Writing)과 말(Speech)로 구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다. 무슨 대단한 사명감으로 탄생한 건 아니다. 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는데, 서점 아니면 출판사, 그 외에는 직업으로 할 만한 게 없어서 취미인지 사업인지 경계도 불분명한 ‘일’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하면서 거창한 비전도, 미션도 세우지 않았다. 지도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듯이 창업의 흥분이 가시기 전에 원대한 그림을 그려야 좋은 회사가 되고, 또 초심을 잃을 때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법인데, 그런 면 얘기는 당장의 쓸모도 없고, 거추장스러운 격식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책이 바로 길이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동지들이 이정표였다. 6년 전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글들이 많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그만큼 성장한 징표였으니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니라고 자위해 본다. 그런 자기성장의 과정을 평범한 독서 입문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성장하도록 돕는 경험과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아무튼, 이런 책과 글, 그리고 말의 경험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콘텐츠의 보고이자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애초에 책을 읽는 방법으로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은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심화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힘들어했다. 글을 쓰려고 하니 사유와 콘텐츠의 부족을 체감하고, 이제 제대로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걸로 돌아갔다. 이게 잘못된 길은 아닌데, 독서라는 행위가 혼자서 읽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공동(共讀), 함께 읽기다. 바로, 독서토론(讀書討論)이다. 책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독서도 잘 안 하는데, 토론까지 해야 되느냐”고 손사래를 친다. 그게 압박이라면, ‘독서수다’나 ‘책담수다’도 좋다. 책을 읽고 수다를 떨거나, 책과 담 쌓은 사람들이 책에 대해 말하는 유쾌하고도 재미있는 수다.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 잡기

그런데, 꼭 책으로만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 『연을 쫓는 아이』(현대문학),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이레) 같은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보고 <원작독토>도 하고, 책과 노래를 결합한 <북콘서트>도 하고, 책을 한두 문단씩 돌아가면서 직접 낭독하고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낭독공감>도 하고, 서평을 각자 써와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서평독토>도 했다.

그런데, 책에만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혼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영화를 함께 보고 <영화토론>도 하고, 고갱전을 함께 보고 <미술토론>을 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만 토론하란 법 있나? 토론하면서 배워가는 게 진정한 공부 아니겠는가. ‘닥터 지바고’ 뮤지컬을 함께 보고 <공연토론>을 하고, 가벼운 산행 후에는 <산행독토>까지 했다. 문학기행이나 인문학기행이 뭐 별건가? 여행하면서 그 장소와 어울리는 책을 토론하면 되지. 전남 강진에 가서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창비)를 가지고 <여행독토>를 했다. 저자강연회만 듣지 말고, 그 강연회를 함께 듣고 하는 독서토론은 어떨까? 왜 수동적으로 저자의 일방적인 강의만 받아들여야 할까? 강연을 듣고 하는 토론, <강토공감>이 탄생했다.

사실 토론거리는 정치적인 이슈나 연예인에 대한 신변잡기뿐만이 아니다. 직장인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소재 고갈 때문인지,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인지 잡담에만 머무른다. 그런 소비적인 얘기 말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책 속의 소재를 일상의 삶에 가져와 함께 노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있다. 아직은 책을 좋아하기 시작한 독서 입문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늦바람이 무섭다고 했던가. 뒤늦게 책에 재미를 붙이고, 왜 이제서야 이런 좋은 책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만시지탄,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다. 뿌영기만 했던 미래, 대책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기뻐했다. 책의 재미와 가치에 흠뻑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학습공동체는 아지트이자 코뮌이다. 그래서 일상의 해방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외롭지 않은 건 함께 하는 동료의 있기 때문이고, 뜻을 함께 하는 동지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 진지하지만도 않고, 너무 소비적이지 않은 모임. 재미와 의미를 함께 추구하는 학습공동체!

힐링이나 자기계발 차원에서 머물던 수동적인 독서에서 자기 성찰과 토론을 통해 주관을 확보하는 능동적인 독서로 발전하고 있다. 독서토론은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질문력이 응답력을 넘어선다. 새로운 시대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문제해결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화두제시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독서토론의 논제다.

학습공동체, 그리고 독서토론

독서토론은 토의처럼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마당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거기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의견, 경험과 가치를 나누는 소통과 지혜, 재미와 감동의 무대다. 그렇다. 독서토론은 현안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 그 이상이다. 거기에는 치유와 성찰, 통찰과 해안이 있다. 경험과 지혜, 주관과 객관, 가치와 재미, 그리고, 삶에서 배어나오는 감동이 있다.



바야흐로, 독서토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간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하지만, ‘치료’라는 단어에서 보듯 전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거부감이 있었고, 서평도 대중화 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글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서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말은 많고, 글보다 말이 편하다. 오히려 글보다 말이 먼저다. 서평은 독서토론을 하고 난 후의 결과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청소년들에게 토론을 하게 하지 않고 글쓰기, 심지어 논술을 먼저 하게 하는 건 속도위반이다. 형언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독서광들만 하는 골방 독서토론, 80년대 의식화 방법으로 진행된 발제와 토론에서 벗어나 광장 독서토론, 객관화된 발제와 토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독서동아리에서만 진행되던 독서토론은 독서 입문자들도 즐길 수 있는 독서토론 모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독서토론은 혼자서 하는 고군분투의 힘겨운 싸움으로서의 독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재미있는 놀이로 바뀌게 하는 힘이 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모임은 가정, 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 기업 단체에서도 확산되어야 한다. 숭례문학당이 그간 진행한 독서토론 리더과정만 해도 서울문화재단에 이어 성북구청, 김포시 평생학습센터로 확산되고 있다. 3년 전 파주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독서토론 전문가과정은 울산남부도서관의 지역연합 독서토론으로, 양천도서관의 시니어 독서토론 과정으로, 도봉구의 우리 동네 북리더 되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독서토론 교육과정은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병영도서관 담당자 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산간오지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토요도서관학교 사업에 이어 전국 병원과 요양원, 교도소, 노인복지관 등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교육청도 예외는 아니다. 양평교육청, 이천교육청에 이어 평택교육청에서도 10주차의 긴 기간동안 독서토론 리더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독서토론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 프로그램

을 학습과 생활 현장에 이식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나라의 독서문화 지형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주입식 교육에 대한 회의와, 주도적이고 재미있는 독서토론으로의 학습문화를 구축해 갈 것이다. 자치구, 도서관, 교육청 모두 문화의 거점이자 중심은 책이고, 도서관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교육이나 문화 분야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만, 성인 학습에 머무르지 말고 입시교육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내 아이만은 무한경쟁의 입시지옥에서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허망한 욕망을 거두어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인문학과 자기계발의 행복한 만남

모든 조직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기업 내 학습공동체의 구축이다. 기업교육은 조직만을 위한 ‘교육’에서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학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라도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계발이라고 외국어나 자격증 공부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의 폐해처럼 직장인의 자기계발 패턴도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의 기업 독서경영이 수동적인 독서, 업무로서 대하는 독서였다면, 독서경영 2.0 시대에는 능동적인 독서, 학습놀이로서의 독서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구글의 놀이문화를 배우자고 하면서 왜 놀이터만 만드는가! 왜 우리 기업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즉 각자가 하고 싶은 공부, 취미를 개발할 여유와 시간을 주지 않는가. 말 잘 듣는 인재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문제해결 능력이 아니라 콘텐츠에 기반한 의제설정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다.

공공도서관은 이미 학습놀이공동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주 이용자는 유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공주, 즉 공부하는 주부들 뿐이다. 기업도서관, 기업도서실을 기업문화의 수원지, 연구개발 놀이터로 구축해야 한다. 또 사회책임과 관련해 1사1산, 1사1강 운동처럼 1사1도서관 후원을 하는 건 어떤



가. 사회책임경영이 도도한 흐름이라면, 1회성 지역 문화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든든한 고객을 확보하고,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길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퇴직 후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것만 믿고 개인과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협동조합이 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동아리기업을 제안한다. 동아리 기업(community company)은 일과 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기업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취미를 일로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동아리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이의 지점을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이 돈만을 버는 일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한 법이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표현할 글이 없어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정신. 송례문학당은 자신의 뜻을 펴고 싶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과 말로 표현하게 하는 일을 돕고자 한다. 문자가 없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아서 생긴 병통을 고치는 일이다. 자기성찰은 책을 통해서, 또 말과 글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되고, 심화된다.

프랑스의 문화가 살롱에서 탄생했다고 한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독서공동체, 책아지트에서 탄생할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놀면서 삶의 새로운 혁명을 꿈꿔보자!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겪고 있고, 책읽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대안의 삶을 꿈꾸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한다.

함께 읽기의 즐거움

바야흐로 공유의 시대다. 여행 중에 렌트카, 호텔 숙박 등도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유에서 출발한 비즈니스다. 우리의 전통 사회, 즉 마을에서 품앗이, 두레 등도 함께 나누고 일의 효율을 더 높이자는 데서 출발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핵가족에 이어 가족 해체를 겪다 급기야 1인 가족의 비중이 전체 가구 중 25%를 넘기에 이르렀다.

포드시스템 이후로 대량생산 경제는 분업화를 통해 일에 대한 소외를 가져오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의 발달은 인간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점점 파편화되고, 고독화 되고 있다.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 복원이란 화두는 신자유주의의 자본 논리와 경쟁 논리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그간 효율과 속도를 추구했던 사회 시스템은 여유와 느낌, 사유와 가치를 점점 하게 하고 있다.

공유의 시대에 이제는 카풀 차원에서 벗어나 쉐어 하우스, 콘텐츠 공유, 재능 공유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 올려진 많은 정보들, 위키피디아와 유튜브의 영상들도 마찬가지다. 그간 화폐로 주고받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자신의 재화와 서비스, 재능으로 공유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혼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지만 불필요한 소유에서, 함께 쓰면서 낭비도 줄이고 사람과의 정도 나누는 공유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공유의 열풍은 단순히 공유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사람과의 소통에 더 목말라 하고 가치를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추동한 건 바로 인터넷 혁명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유튜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켰다. 이집트의 한 청년이 무바라크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의 글은 삼시간에 공유되면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무바라크는 권좌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유하며 새로운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집단지성, 공유경제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제프 자비스 뉴욕대 저널리즘 교수는 『공개하고 공유하라(Public Parts』라는 저서를 통해 공유시대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생활에 너무 얽매이면 링크(link(연결))의 시대에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링크는 단순히 웹페이지에 연결시켜주는 것 뿐 아니라 개인 간, 정보, 행동, 거래도 연결시켜준다. 링크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의 공중(公衆), 즉 공통의 이해나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재정의하도록 도와준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링크를 차단해 버리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 기관들까지 손해를 입는다.

“우리는 자신을 공개할 때 배우고 연결되고 협동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위키피디아, 구글 검색에서 페이스북에 이르는 도구들을 통해 우리는 대중의 지혜, 즉 우리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새로운 공공체, 즉 공공 영역을 창조할 수 있다. 공적인 것은 공공재이며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성공지상주의 독서 탈피가 시대흐름

책은 예로부터 혼자 읽는 것이었다. 독서(讀書)는 독서(獨書)다. 이제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읽는 시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읽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아니, 변해야 한다. 독서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간접경험을 쌓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의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전인수식 독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독서광 중에 의외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강요하는 아집과 독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제 혼자 하는 독서에서 함께 하는 독서, 개인적인 독서에서 사회적인 독서로 나아가야 한다.

박홍규 교수는 『독서독인』에서 독서(讀書)가 독서(毒書)가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 독재자들도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말한다.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 괴벨스, 무솔리니, 폴 포트도 독서광이었다. 나폴레

웅이 읽은 고전 목록을 보면 인문학의 대가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전들은 모두 반민주적인 책이었다. 플루타르코스가 쓴 영웅전,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의 전기, 무엇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이다. 나폴레옹의 영웅주의, 야망주의, 경쟁주의는 세계사에서 불행을 낳았고, 그의 세계 정복은 제국주의를 초래했다.

스탈린 또한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독서광이었고 노력하는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전제 권력자이자 대량 학살자였다. 히틀러도 어려서부터 매일 밤 책을 1권 이상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군사, 예술, 점성술, 대중소설, 가톨릭 관련 책들까지 방대한 책을 읽었고, 대중선동의 귀재로 나치즘을 전파했던 괴벨스도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심취했다. 이들 모두는 ‘독서가 낳은 괴물’이었다.

책 속에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하도 책을 읽지 않으니 일단은 어떤 책이든 읽게 할 의도로 했다고 해도 어떤 책도 절대적인 구원을 약속할 수는 없다. 한 권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기대해서도 안 된다. 자기계발서 몇 권을 읽고 책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단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경계해야 하는 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다.

책을 아예 읽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 교수가 지적했듯 ‘갑의 독서’도 문제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갑은 아예 독서조차 하지 않아서 더 문제다. 책을 읽지 않으니 글도 쓰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을의 독서라고 왕성해야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이고, 행복하게 할 텐데, 그들도 마찬가지다.

또, 많은 사람들의 갑의 독서를 하고자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독서를 하지만, 그 종착역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우리 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독서수준을 듣자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한 대학의 총장은 책은커녕 신문조차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바쁘다 손 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치고는 너무 반교육적이다.



독서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함께독서 모임

독서조차 빈익빈 부익부다. 읽는 사람만 읽고,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않는다. 많은 독서운동가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서를 하는 이유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먼저 든다. 독서의 세계로 입문을 권하기 위해서이겠지만, 재미만을 위해서 읽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하며, 행복하기 위한 독서를 해야 한다.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읽어야 한다.

함께 읽기는 낭독모임처럼 모여서 함께 읽는 것도 있고, 각자가 읽고 와서 토론하는 독서모임일 수도 있다. 낭독모임은 어려운 고전이나 책읽을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모임이다. 숭례문학당에서 진행하는 낭독공감 모임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우스개소리로 말하는 동서양 고전을 읽기 위한 모임으로 출발했다. 서양 고전 『일리아스』와 『니코마코스 윤리학』, 동양 고전 『대학』 『중용』을 함께 읽었다. 그리고 낭독하기 좋은 김훈의 『칼의 노래』, 김영민의 『공부론』도 읽었다. 사회비평서인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신작, 문명사 『어제까지의 세계』도 함께 읽었다. 독서는 혼자 읽는 행위, 즉 독서(獨書)라는 걸 꽤 새로운 시도였다. 기존의 시 낭송회에서 벗어난 진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는 공동(共讀)의 현장이다.

말과 글은 하나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지만, 요즘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강연 내용을 정리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우리 시대 최고의 에세이스트라고 하는 고종석의 글쓰기 책도 강연을 정리해 <고종석의 문장>(알마)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고미숙의 구어체 문장은 또 어떤가. 고전평론가로 이름을 얻게 된 <열하일기, 그 유쾌한 시공간>은 어려운 고전을 아주 명쾌한 해석으로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발랄하고 경쾌한 해석에 힘입은 바 크지만, 인기의 밑바탕에는 쉬운 입말체가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사주명리학을 쉽게 들려주고 있는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임궽

정, 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너리그의 향연》 또한 마찬가지다. 고미숙은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에서 낭독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낭송은 소리를 통해 몸의 안과 밖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집합적이다. 즉 혼자서 할 때조차 그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소통에의 욕구가 없이는 낭송이 불가능하다. 낭송은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 집단적으로 암송을 하노라면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도 터득할 수 있다. ...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식과 몸의 소외가 극복된다.”

그렇다면, 낭독은 어떻게 하는가? 명문장들을 낭독하는 게 좋다. 〈토지〉나 〈태백산맥〉, 〈갈래의 노래〉 같은 소설도 좋고, 〈김영민의 공부론〉 같은 함축적인 인문서도 좋고, 〈인간이 그리는 무늬〉 같은, 강연을 바탕을 정리한 인문교양서도 좋다.

김훈의 〈자전거여행〉 같은 에세이도 좋고, 신문의 잘 쓴 칼럼도 좋다. 책만 보면 졸린다는 사람들에게도 낭독을 권한다. 묵독은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빠르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눈으로 글자를 따라보는 걸 이해한 것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려운 개념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은 경우 쉽게 읽히지 않는다. 〈논어〉와 〈대학〉 같은 동양의 고전은 옛 선비들이 낭독하면서 읽는 경전이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서양의 인문고전도 낭독하면 졸리지 않는다. 낭독이 각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낭독을 해보면, 2-3페이지를 넘기기가 쉽지 않고, 30분을 넘게 지속하기도 쉽잖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호흡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이다. 낭독을 하면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허리와 어깨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좋은 소리가 나온다. 모든 일의 성패는 태도가 좌우하듯이, 소리 또한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책상다리를 하고, 주먹으로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낭랑하게 경전을 낭독했던 옛날 선비들을 생각하면 된다. 흐트러진 자세로 낭독하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다.



옛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담장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요즘은 옆집의 피아노 연습 소리만 시끄럽게 들린다. 기계음과 자연의 소리는 그 차이가 다르다. 좋은 목소리를 내자면 낭독 연습을 하면 된다.

그리고, 목이 쉬지 않고 좋은 소리를 내려면 배에서 끌어올려 머리를 가득 채우는 두성으로 해야 한다. 목에서 나는 소리는 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괴롭지만, 배에서 울리는 소리는 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감동이다. 나의 몸을 울리고 상대방의 가슴을 울린다.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낭독하면 좋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하면 즐거운 일이 바로 낭독이다. 한두 문단씩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읽으면, 힘도 덜 들고 집중력도 키울 수 있다. 주거나받거나 나의 낭독을 들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낭독을 들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목소리, 서로 다른 개성의 목소리를 듣는 즐거움과 재미도 있다.

책과 친해지기 전에는 저자와 친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저자 강연회나 북콘서트에서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저자와 책에 연결되고, 책의 전체 맥락을 잡을 수도 있다. 저자 강연회가 저자의 강의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독서라고 한다면, 독서토론 모임은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그에 반하는 비판적 책읽기를 하는 능동적인 독서다. 10명이 모임에 참석하면 10가지 다른 색깔의 읽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혼자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하기도 하고, 무릎을 치며 공감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즐거움도 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했던 내용이 다른 독자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는 깊어지고 넓어진다.

독서(獨書)가 자신만의 우주를 만드는 일이라면, 공독(共讀)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우주를 만드는 일이다. 독서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개인적인 활동이라면, 공독(共讀)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독서(獨書)는 독서(毒書)다, 평면독서에서 입체독서로

책을 중심으로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회사를 꾸려온 지 만 8년째다. 처음에는 책이라는 콘텐츠와, 글과 말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rws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글과 말이 잘 되지 않는 건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책, 즉 콘텐츠의 문제가 더 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말을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글로 잘 정리되지 않았고, 말은 그럴 듯한데 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아적은 말이 부족했다. 글과 말은 하나였고, 글과 말의 기반은 바로 책이었다. 글공부, 말공부를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독서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자신의 생각, 즉 사유와 관점에 대해 고민했다.

그런 면에서 베이컨의 다음 말은 꼭 새겨들을 만하다. “독서는 풍부한 사람을, 대화는 재치있는 사람을, 글은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책을 읽는데서 끝내지 않고, 토론하고, 서평을 쓰는 독후활동을 하는 이유도 독서(獨書)가 독서(毒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형 독서, 양적 독서에 매몰돼 있다. 특히,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 독서입문자 중에서 잘못된 독서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1년에 100권 읽기, 심지어는 하루에 1권 읽기를 목표로 삼기도 한다. 독서 경력이 쌓이면 그걸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또,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야 전부 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성취형 독서목표를 세우다 보면 질보다는 양에 집착하게 된다.

연말이면 북블로거들 사이에서 올 한해 읽은 독서목록을 올리고, 공유하는 걸 흔히 접한다. 지난 1년 동안의 독서이력을 돌아보면서 한 분야에 치우친 독서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다른 독서가들의 독서목록과 비교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온라인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 저자의 정신적인 활동과 영혼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즐거움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은 보고 배워야 할 부지런함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칫 이런 활동들이 자신도 모르게



성과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살짝 우려된다.

독서 강연을 하면, 자주 “양이 질을 담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이 질보다 양이 우선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물이 끓기 위한 비등점이 100도이듯이 책도 터닝포인트의 시기가 있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양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지, 모든 책을 속독으로, 빨리 많이 읽는 데 집착하라고 권한 건 아니다. 흔히, 정독(精讀)과 다독(多讀)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묻는데, 사람마다, 시기마다, 책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편협과 아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서

그래서, 독후활동을 강조한다. 읽기만 하고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으로 독서가 끝난 게 아니라 독후활동을 통해 저자의 입장과 나의 처지를 비교해 보고, 저자의 생각과 나의 사유가 만나는 지점, 맞부딪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존 로크가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며,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색의 힘”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독후활동, 그것을 자신에게 체화하는 과정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책만 읽는 사람보다 독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독후활동은 필사를 하거나, 리뷰나 독후감, 서평을 쓰거나, 독서토론을 하는 방법이 있다.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편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글과 말은 대체로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 4지선다나 5지선다식 객관식 시험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체화하지 않고, 소비적인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독서쇼핑이나 강연쇼핑처럼. 명품 쇼핑족보다야 훌륭한 이들이지만, 자칫 지적 허영에 빠진 건 아닌지 자성해 볼 일이다. 덧붙여 책완상가(冊玩賞家)나 책수집가, 북쇼핑족은 출판사나 문화정책 당국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독후감이 책에 대해 주관적인 감상을 위주로 쓰는 독후활동이라면, 서평은

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독후활동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후감까지는 어찌 써보겠는데, 서평은 어려워한다. 감히 저자의 책을 평가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말하자면, 경서가(敬書家)다.

물론, 독서 초심자이면서도 저자의 논지에는 아랑곳 없이 지엽적인 문제에 판지를 걸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저자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도 곤란하다. 특히, 자기계발서를 선호하는 입문자들의 경우 책을 맹종하는 경우가 많다. 한 수강생에게 필사가 책을 정독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휘력과 글쓰기를 키우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했더니, 수준 이하의 자기계발서를 그야말로 경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골의사 박경철은 『자기혁명』이란 책에서 습관 바꾸기와 함께 독서와 글쓰기를 자기혁명의 도구로 삼길 권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언어 능력이라고 말한다.

“독서를 통해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언어와 말하는 언어를 배우고,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고, 언어는 맥락이 있어야만 뜻이 형성된다. 언어, 즉 어휘가 부족하면 생각이 풍부할 수 없고 언어를 맥락화 할 수 없다면 체계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의적인 독서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독서가 방대한 기회를 주는데도 독서를 통해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독서의 대상이 편협하거나 저자의 논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건이나 이야기에만 몰입하는 나쁜 독서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한다.

『지의 편집공학』, 『창조적 책읽기, 다독술이 답이다』의 저자 마쓰오카 세이고는 엄청난 독서가에다 서평가이기도 하다. 그는 2000년부터 주말을 빼고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날마다 그에 관한 장문의 글을 웹에 올렸다. 환갑을 맞은 2004년에 1천화를 돌파한, 장르와 분야를 넘나드는 가히 독서기인이다. 그는 결과물로 ‘센야센사쓰(千夜千冊)’란 일곱 권의 대형 전집이 탄생했는데, 우리로 치면 『장정일의 독서일기』쯤 되겠다.



그의 독서법의 핵심은 ‘링크를 늘리는 편집적 독서법’인데, 비슷한 종류의 책을 가능한 한 함께 읽거나 비슷한 시기에 읽는다. 이 세상 모든 책은 ‘책의 바다’나 ‘텍스트의 숲’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책을 읽다보면 ‘열쇠 책(키 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열쇠 책을 토대로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를 만들어가는데, 이를 ‘복합독서법’이라고 한다.

마쓰오카가 말하는 ‘편집공학’은 뇌, 미디어, 말, 몸짓, 이미지, 음악, 오락, 광고 등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 편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형식적인 정보 처리가 아니라 ‘의미적인 정보편집 과정’을 통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세계관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전망하는 학문이다. 그가 말하는 편집공학을 독후활동에 적용해보면, 하나의 주제에 따라 여러 권의 책을 서평으로 직조하는 일이다. 그리고, 복합독서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토론이다.

북 코뮌으로 독서 공동체 복원

그는 북클럽 같은 독서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일본에서 공동체가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커뮤니티와 의미의 시장이 토막토막 단절되어 있다. 활기 넘치는 지역 도서관이나 대형서점이 있다 해도 의미의 시장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둘째, 책은 혼자서 읽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에서는 교육의 중심을 다독과 토의에 두는데, 일본에서는 독서체험을 개인의 수면이나 휴식처럼 여겨 ‘북 코뮌’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공동(共讀)의 새로운 재미를 먼저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책을 추천하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예도 시대에는 인연이 강조되고, 취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문화를 추천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문화가 쇠퇴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실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독서 인구가 일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고 매번 언론에서 떠들 정도니 더 열악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

다면, 우리도 이제 공유의 시대에 맞춰 공동의 가치를 전파하고 실천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에 이어 독서 공동체를 구축하고, 복원해야 한다. 송례문학당이 서평쓰는 모임인 서평독토(書評讀討)를 하고, 독서토론 모임인 독토공감(讀討共感)을 하고, 낭독모임인 낭독공감(朗讀共感)을 하고, 경제경영 도서를 읽고 세미나를 하는 경영독토(經營讀討)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연장선이다.

전시회나 공연을 함께 보고 미술토론과 공연토론, 강연을 함께 듣고 토론하는 강토공감(講討共感)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공유하는 것으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한다. 책이 원작인 영화토론을 하고, 급기야 산행을 하면서 독서토론을 하는 산책독토(山冊讀討)까지 하는 것도 ‘책’이 아니라, ‘책 읽는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들 모임은 각자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치유모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유하고, 각성하는 영혼의 충전소이자,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삶의 안식처이자 해방구가 되기도 한다.

* 이 원고는 <이젠, 함께 읽기다>(신기수 외, 북바이북)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독서공동체로 성장하는 시민사회

-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 사례 발표 -



운동 하니, 운동 된다!

운동(sports) 하니 운동(movement) 된다.

운동(movement)을 운동(sports)처럼!





태동

- 2006년 12월 (주)행복한상상 설립
- 2008년 11월 rws인스티튜트 개원
- 2013년 5월 승례문학당 개원





학습모임

- 독토공감
- 서평독토
- 낭독공감
- 논제독토
- 영토공감
- 조조영화
- 영화리뷰
- 평전독토
- 이야기 하기 위해 살다
- 독후감 쓰기
- <토지>모임
- 연극모임
- 시모임
- 칼럼모임

파생모임 ... 어디로 튈까?

- 밀린 책 읽기 모임, 두꺼운 책읽기 모임
- <신곡> 읽기, <담론> 읽기 모임
- 고전문학 북클럽, 사회과학 독토
- 엄마독토, 어쩌다 아빠독토?
- 작가수업 드디어, <소설가의 꿈> 모임
- 하다보니, 함께 집짓기 모임
-



온라인 ... 뉴욕, 모스크바, 연변

- 100일 글쓰기 ...
- 30일 요약 ...
- 50일 건강습관 ...
- 100일 걷기모임...
- 온라인 독서토론 ...

* 온라인(디지털)과 오프라인(아날로그)의 결합

지덕체... 운동모임

- 하루키 클럽 ... 마라톤모임
- 걷기모임
- 스쿼트, 식습관, 요가, 다이어트



독서토론 리더 양성

- 학당 ... 28기
- 지자체 성북구(5년째), 구로구(2년째), ...
- 도서관 도봉문화정보도서관(4년째), ...
-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경기권 거의 모두 ...

* 독서활동가... 2010년부터 연인원 3천명 이상 육성

도서관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도서관, 정독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광진도서관, 상계도서관, 양천도서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중랑도서관 ...
- 지방 ... 안성도서관, 시흥도서관, 인천 중앙도서관, 인천 남구 도서관, 천안 쌍용도서관, 안산 작은도서관협의회 등 ..





도봉 문화정보 도서관

□ 우리 동네 '북리더(Book Leader)' 되기, 2기

- 기간 : 2014년 5월 7일(수) ~ 7월 29일(수), 매주 수요일 14:00~17:00
- 독서토론 진행, 논제 작성 및 토론진행실습 등의 내용으로 총 12강 구성
- 강의 수료후 독서토론 강사동아리 3개 동아리 구성



- 강의 수료후 독서토론 강사동아리 '다올'과 '파로스' 2개 동아리 구성

지자체 전파

- 시민 독서토론 ... 성북, 도봉, 구로, 부평, 군포, 김포
- 공직자 독서토론 ... 의정부, 당진



기업, 기타

- 기업 ...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능률교육 ..
- 도서관 지원사업 ... 수원도서관사업소(무궁화전자) ..
- 기타 ... 화상 점자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한살림 수원지회, 다문화가족, 탈북대학생 ..



'독서토론 바람' 기업으로 번진다...사내 클럽 활성화 등 활기

입력 2014-12-30 17:58

공유하기



중 교육이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제일모직 측도 "김봉영 대표가 굉장한 독서가이고 독서경영에 워낙 관심이 많다"면서 "신입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독서토론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서 전사적 차원으로 독서토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모직은 신입사원 독서토론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사장과 간부들의 독서토론을 새로 시작했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기로 결정했다. 승려문화당이 북콘서트의 진행자 역할을 맡는다.

신 대표는 "제일모직 대표가 간부들과 좀더 깊게 소통하기 위해 독서토론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는 소통이라고 하면 강연회나 간담회 형식이 많았는데, 독서토론이 기업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독서토론은 이미 여러 기업에서 직원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승려문화당은 현대백화점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독서토론 교육을 진행해왔다. 기업들의 독서경영이 독서토론이라는 트렌드와 만나 사내 독서클럽 확대로 진화할지 주목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올 해 독서문화의 한 흐름으로 형성된 '함께읽기' 바람이 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은 사내 독서클럽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독서클럽과 독서토론을 이괄 리더를 양성하기로 하고,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보급해온 승려문화당과 논의 중이다. 신기수 승려문화당 대표는 30일 "제일모직으로부터 사내 독서클럽을 조직하고 독서토론을 도와주는 '북파실리데이터' 양성 교육을 해달라는 주문을 최근 받았다"면서 "제일모직은 80~90명 정도의 북파실리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협의를 거쳐 3월



초등부터 대학까지

- **교육청** ... 서울교육청, 성부교육청, 강남교육청, 인천교육청, 상주교육청 ...
- **대학** ... 동국대, 광운대, 청강문화대, 한기대, 중부대 ...
- **학교** ... 성남 단대초, 부천 부일중,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



기타 활동

- 사서 위탁교육 ... 경기도청
- 북콘서트 ... 국립중앙도서관, 전국순회
- 인문학 강연회 ... 하남시(2년), 남양주시(1년)
- 대학 독서/글쓰기/토론 캠프 ... 동국대, 중부대

프로그램

- 독서토론 입문, 리더, 심화과정 ...
- 서평쓰기 입문, 집중, 심화과정 ...
- 책통자 아이들 ... 독서경영 ...
- 북콘서트 ... <문학은 노래다>
- 독서캠프, 글쓰기캠프, 가족캠프 ...
- 북뮤지컬 ...

독서공동체 ... 마을공동체의 기반

-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공간), 상호작용, 연대를 공동체의 핵심 요소
-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 취향의 공동체
- 디지털(온라인)과 아날로그(오프라인)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



신뢰공동체 ...

- 치유와 성장의 함께공동체
- 시민(단체)과 정부(지자체)의 협치 모델
- 종교(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변형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 “인문학의 시작은 질문과 의문에서 시작”
— 김경집 교수
- “유명 강사가 멋진 강연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진정한 인문학이다.”
-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

11.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시리즈의 11권. 각 책은 다양한 주제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2.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3.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4.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5.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6.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7.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8.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9.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10.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 11. **나의 작은 책** (My Little Book) - 기본 개념 소개

다.

자유와 소통의 해방구
지혜와 통찰의 전망대
영혼과 정신의 교감장
운동과 훈련의 수행처
육체와 수련의 단련장
취미와 취향의 아지트



언론 보도

SBS8뉴스 기사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요'〉



조선일보(2015 5/16)

[편집자 레터] '혼자 읽기' + '함께 읽기'



경향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21 등
주요 신문과 잡지, KBS, EBS, YTN 등 주요 방송에 보도

운영 준칙

-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
- 각자의 재능과 취향을 살리는 공동체
- 사진, 진행, 후기, 보고서, 기획, 마케팅, 홍보 ...
- 각자에겐 각자의 재능이 ...



이후 계획들 ...



서해 학교



연예인 독토 ...





책으로 통하라

master@rws.kr





연구 발표

-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연구 성과 분석
정광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연구 성과 분석

정광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년 「길 위의 인문학」 연구 성과 분석

2016. 10. 27.



목 차

I. 사업실적 분석

II. 설문조사 [중간] 분석

III.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2



발표 내용은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프로그램 연구
중간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최종단계에서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프로그램 연구내용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실적 분석 및 현장 모니터링
- 길 위의 인문학 성과 분석(설문조사 포함)
- 우수 프로그램/도서관 선정
- 길 위의 인문학 성과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3



I. 사업실적 분석

1. 연도별 사업실적 통계
2. 2016년 사업 추진현황
3. 2016년 프로그램 유형분석



1-1. 연도별 사업실적 통계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연도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선정 도서관 수	121	180	280	320
예산	1,934	3,620	5,080	5,600

- ✓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예산은 총 5,600백만원으로 2015년(5,080백만원) 대비 9.3% 증가
- ✓ 1개관 당 1,000만원 지원으로 2015년(1,100만원) 대비 10% 감소
- ✓ 2014년 대비 예산은 약 55% 증가, 참여도서관은 78% 증가로 효율성 증대



2-1. 연도별 사업실적 통계

◆ 2013-2016 사업 실적

내용	2013	2014	2015	2016
내용	강연 · 탐방 프로그램	강연 · 탐방/ 체험 · 후속모임	강연 · 탐방/ 체험 · 후속모임	강연 · 탐방/ 체험 · 후속모임
예상목표	1관당 3회 이상	1관당 6회 이상, [예상 1,080회]	1관당 7회 이상, [예상 1,960회]	1관당 8회 이상 [예상 2,560 이상]
누적횟수	누적 594회 [강연 305회, 탐방 289회]	누적 1,538회 [강연 723회, 탐방 570회, 후속모임 245회]	누적 2,716회 [강연 1,103회, 탐방 929회, 후속모임 684회]	-
참여인원	누적 21,977명	누적 48,919명	누적 86,681명	예상 인원 90,000명 이상
기간	2013년 9월~11월	2014년 3월~12월	2015년 4월~11월	2016년 4월~진행 중
지원대상	공공도서관 121개관 [서울 지역 제외]	공공도서관 180개관 [16개 시 · 도]	공공도서관 280개관 [17개 시 · 도]	도서관 320개관 [17개 시 · 도]
지원규모	1개관당 약 830만원 지원(3회 기준)	1개관당 약 1,100만원 지원 (7회 기준)	1개관당 약 1,100만원 지원 (7회 기준)	1개관당 약 1,000만원 지원 (8회 기준)

6



1-2. 2016년 사업 추진현황

◆ 2015/2016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유형 비교

2015

기본형

강연과 탐방(체험)을 1회씩 조합
1차, 총 3차를 진행하고 후속모임 1회
포함해 총 7회 진행 기본

연계형

각 부처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의 융 · 복합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대상특화형

인문학적 혜택이 부족한 문화 소외
지역 · 계층 또는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2016

강연 및 탐방(체험)형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하여 강연횟수
를 늘려 깊이와 흥미 있는 프로그램
진행

대상특화형

청소년(자유학기제 연계), 직장인(직장인 인
문학), 종장년 및 노인(자서전 쓰기 등), 인문
학적 혜택이 부족한 소외계층 또는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혼합형

강연 및 탐방(체험)형과 대상특화형
을 혼합한 형태



1-2. 2016년 사업 추진현황

◆ 2015/2016 사업 참여 도서관 비율

[단위: 수, %]

2015년 지원 및 선정 도서관 수				2016년 지원 및 선정 도서관 수			
도서관 수	지원관 수	지원율	선정관 수	도서관 수	지원관 수	지원율	선정관 수
934	350(7)	37.5%	280(2)	979	414	42.3%	320(10)

8



1-2. 2016년 사업 추진현황

◆ 2016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내용

기본 프로그램

- ✓전국 320개 도서관
[대학 도서관 10개, 어린이 도서관 13개 포함]
- ✓1개관 당, 8회 이상 기본 원칙
- ✓도서관 당 10,000천원 예산



특별 프로그램

-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 고전인문학당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 옛길 걷기 인문학

9



1-2. 2016년 사업 추진현황

◆ 특별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사업기간	사업대상	진행 단계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2016년 6월 ~11월	직장인	진행 중
고전인문학당	2016년 9월 ~11월	지역주민	진행 중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2016년 7월~11월	중학교 1학년	진행 중
옛길 걷기 인문학	2016년 11월 중	지역주민	추진 계획 단계

● 특별 프로그램의 성과

- ✓ 참여 대상의 다양화(청소년, 직장인, 남성 등)
- ✓ 참여자들과의 소통과 공감 강화
- ✓ 주제 및 방식의 다양화
- ✓ 인문학 주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토론 강화

10



1-3. 도서관 프로그램 유형 분석

■ 프로그램 유형 세부 분류 기준

- ①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 지에 따른 구분
 - ②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 ③ 참여를 특정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와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일반으로 개방하는 경우
- 비교를 위해 2015년 유형 분류 기준에 신규로 추가된 과학/미래, 융합, 진로/글쓰기 등을 추가하여 9개 범주로 구분



- 특정대상으로 참여를 제한한 경우가 68.2%로 2015년 46.6%에 비해 대폭 증가
[자유학기제, 중장년층 대상 글쓰기 프로그램 등 영향]
- 일반적 주제 76.3%, 지역적 주제 23.7%로 2015년 지역적 주제가 더 많았던 경우(52.8%)에 비해 일반적 주제가 더 많음(특히 수도권 경우에는 월등히 높음)
- 주제는 역사-융합-예술 분야가 많았는데, 2015년과 비교하여 문학이 대폭 축소(19.9%→4.9%), 역사의 상대적 축소(40.9%→22.9%), 융합과 예술 분야 주제가 확대
 -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역사 분야 주제가 많음.
 - 융합 주제, 기타(음식, 여행, 동물, 인생) 등 주제의 다양성 확대

11



1-3. 도서관 프로그램 유형 분석

[단위 : 개, %]									
구분	참여 대상 : 일반 지역 주민				참여 대상 : 특정 범주로 제한				합계
	일반 주제		지역 주제		일반 주제		지역 주제		
문학	가1.	5[1.9]	가2.	2[1]	가3.	5[1.9]	가4.	0[0]	12[4.7]
역사	나1.	11[4.3]	나2.	17[6.6]	나3.	13[5]	나4.	18[7]	59[22.9]
철학	다1.	2[1]	다2.	0[0]	다3.	4[1.6]	다4.	0[0]	6[2.3]
자연/환경	라1.	5[2]	라2.	0[0]	라3.	7[2.7]	라4.	1[0]	13[5]
예술	마1.	14[5.4]	마2.	2[1]	마3.	35[13.6]	마4.	1[0]	52[20.2]
과학/미래	바1.	2[1]	바2.	0[0]	바3.	6[2.3]	바4.	0[0]	8[3.1]
융합	사1.	11[4.3]	사2.	3[1.2]	사3.	29[11.2]	사4.	11[4.3]	54[20.9]
진로/글쓰기	아1.	1[0]	아2.	0[0]	아3.	26[10.1]	아4.	0[0]	27[10.5]
기타	자1	3[1.2]	자2.	4[1.6]	자3.	18[7.0]	자4.	2[1]	27[10.5]
합계	54[20.9]		28[10.9]		143[55.4]		33[12.8]		258[100]

II. 설문조사 [중간]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도서관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3. 직장인 인문학 설문조사 [중간]분석



2-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회수 현황

구분	설문지 유형	회수 현황
기본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2종)	320개관 중 148개관(43.6%) 약 15,824건 회수
	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진행 중
특별 프로그램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20개처 중 14개처(70%) 532건 회수
	고전인문학당	사업 초기 단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41개관 중 2개관(4.9%) 190건 회수 * 표본수가 적어 이번 분석 제외
	옛길 걷기 인문학	사업 추진 단계

14



2-1. 설문조사 개요

◆ 설문 구성체계

● 설문은 총 2종(3개 세부유형)으로 구성

- ✓ 사업 담당자,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 프로그램의 인식, 수요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
- ✓ 전국 사업 담당자와 기관, 참여자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요인 분석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 개선방안 및 대안 도출

사업 담당자	· 직원의 근무유형, 성별, 나이, 도서관의 위치와 지역 크기 등을 포함한 일반사항에 대한 설문과 사업의 참여 동기, 참여자에 대한 인식, 만족도와 운영 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 · 36문항, 조사기간은 2016년 6월부터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
사업 대상 [참여자]	·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도서관 회원 여부 등을 포함한 일반 사항에 대한 설문과 참여 경로, 동기, 프로그램 주제, 사후 참여 여부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 사후 설문조사는 참여 동기, 선호 프로그램 우선순위,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 · 사전 21개, 사후 22개 문항, 조사기간은 2016년 6월부터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프로그램 전후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

15



2-1. 설문조사 개요

◆ 참여자 설문조사 회수 현황 및 응답 특성(2016. 10. 18. 기준)

구 분	사전 설문조사	사후 설문조사	총계
회수건수	7,264	8,575	15,824

- 여성이 70.4%로 남성 27.6% 보다 많음.
- 40대가 29.3%가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24.7% 다음으로 많음.
- 도서관 회원 73.5%, 비회원 25.5%(정보탐색경로도 도서관내 홍보가 대부분)
-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음.

◆ 직장인 인문학 설문조사 회수 현황 및 응답 특성(2016. 10. 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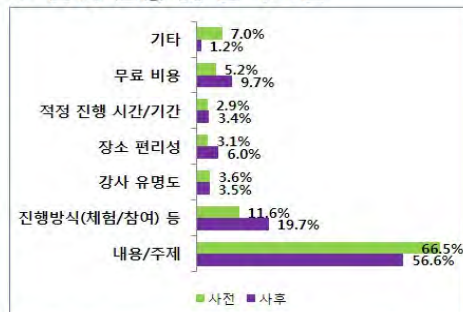
- 10월 17일까지 완료된 14개처에서 532명 응답
- 남성 51.3%로 여성 46.4%보다 많음.
- 20대와 30대가 각각 31.6%, 26.7%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대 순
-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었다는 응답이 83.6%로 가장 많았음.
- 과반수가(60.3%) 소속 조직 단체활동 차원에서 참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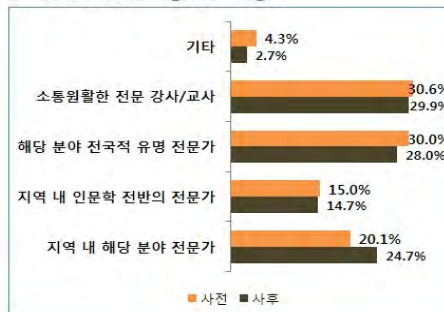
2-2. 도서관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참여 결정 및 만족요인



- 사후 참여자는 사전 참여자 대비 내용/주제 [-9.3%p] 보다 **체험/탐방** [8.0%p] 수요 높음.

◆ 선호하는 강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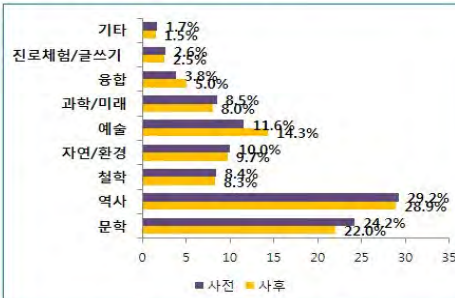
- 선호강사는 사전 참여자와 사후 참여자의 차이가 크지는 않음.
- 사후 참여자는 사전 참여자 대비 **'지역 내 해당 분야 전문가'** [4.8%p]를 선호하므로 지역 전문가 개발 필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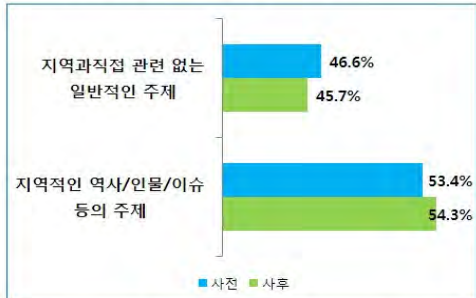
2-2. 도서관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희망 프로그램 장르



- 참여희망 프로그램 장르에서 사전 참여자와 사후 참여자의 차이 적음.
- 사후 참여자는 '문학' [-2.0%p]보다 **예술' [3.2%p]를 선호**하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선호 프로그램 주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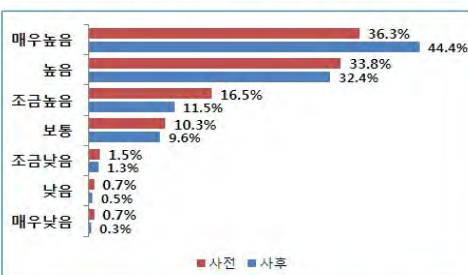
- 참여희망 프로그램 주제에서 사전 참여자와 사후 참여자의 차이 적음.
- 사후 참여자는 '지역성' [-0.4%p]보다 **'일반성' [2.4%p]을 선호**하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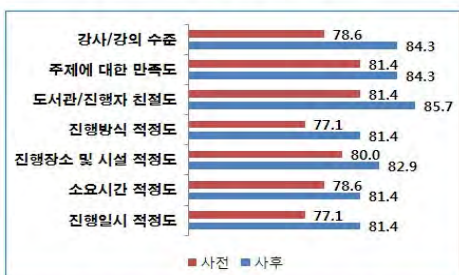
2-2. 도서관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 기대 대비(86.6점) 만족도 보다 사후 만족도(88.3)가 높아 사업의 성과 입증
-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기대 대비 만족도가 중요

◆ 프로그램 요소별 만족도



- 프로그램 만족도(사후)가 기대 만족도(사전)보다 높아 효과 입증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요소별 만족도가 낮아 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

19



◆ 참고자료 : 효과성 평가 지표

✓ 도서관 차원 2개의 지표, 참여자 차원의 3개의 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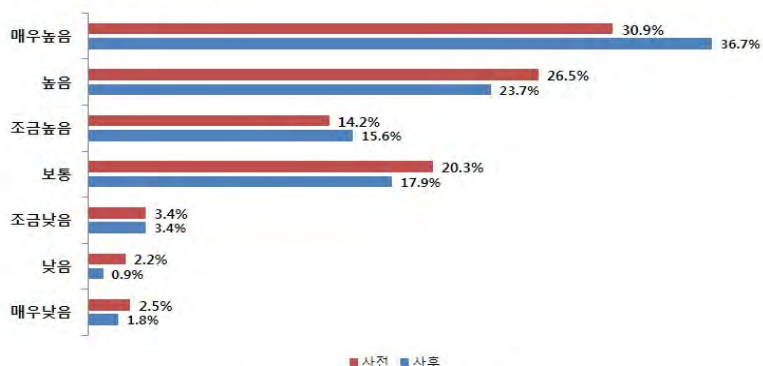
구분	사업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도서관 차원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 인문학의 거점화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 거점 효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도서관 운영 성과	대출, 이용자 증가, 독서동아리 증대/참여
참여자 차원	인문학적 지식과 이해 증대[지식/이해]	나, 지역, 국가에 대한 지식/이해	자기 성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앎과 이해
	인문학을 통한 공공의식 확장[가치/태도]	이웃과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연대성, 애郷심
	공공 활동의 활성화[참여/행위]	이웃,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지역 발전 참여

20



2-2. 도서관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사후 모임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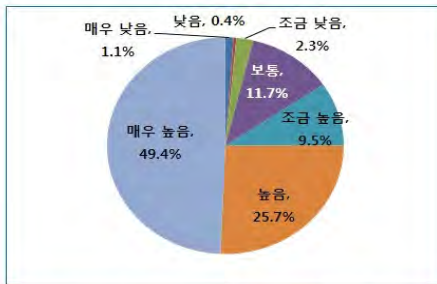
- 사후 모임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의사를 보임
- 사전 보다[71.6%] 사후에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76.0%]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높음을 보여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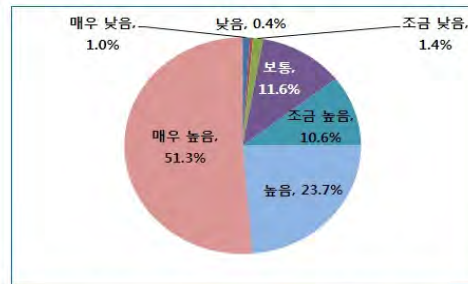
2-2. 도서관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의향은 **84.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낮음은 3.8%에 불과

◆ 인문학 프로그램 주변 권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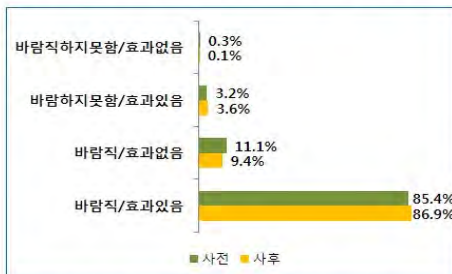
- 주변 권유의향은 **85.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인문학의 가치와 관심을 증명
- 낮음은 **3.8%**에 불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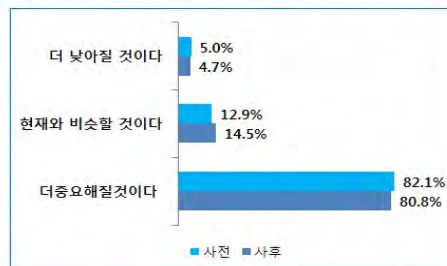


2-2. 도서관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에 대한 인식 ◆ 인문학의 가치에 대한 예상



-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5.4%[사전], 86.9%[사후]**로 증가하여, 정부의 정책에 긍정적 평가



- 향후 인문학의 가치가 지금보다 중요해 질 것이란 의견이 모두 매우 높게 동일하게 나타나 **정책의 지속 확대 요구**

23



2-3. 직장인 인문학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프로그램 참여 결정 요인



- 참여결정요인은 **내용/주제**가 58.6%(1순위)로 가장 많음.

◆ 프로그램 만족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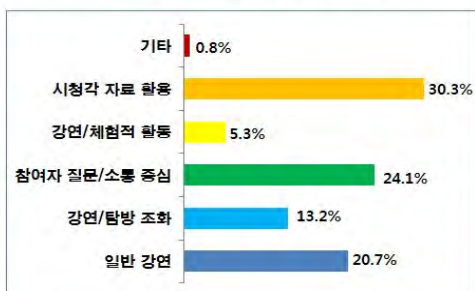
- 프로그램 만족요인은 **내용/주제** 만족 요인이 62.4%로 가장 높아 기획의 중요성 강조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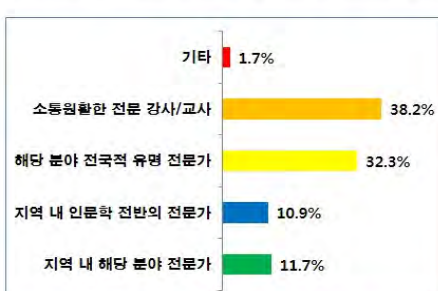
2-3. 직장인 인문학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프로그램 진행방식 선호요인



- 프로그램 진행방식 선호요인은 **시청각 자료 활용**→소통중심→일반강연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강사/진행자 적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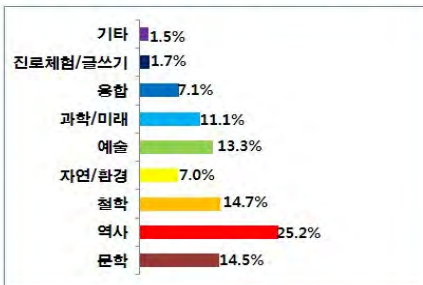
- 프로그램 강사/진행자 적절요인으로 **소통 원활한 전문강사/교사** 또는 **해당분야 유명 전문가**로 가장 높아 분야의 전문성 및 소통을 강조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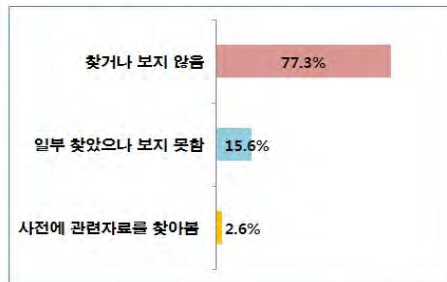


2-3. 직장인 인문학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참여희망 프로그램 주제 분야



◆ 주제 사전탐구 여부



- 희망하는 장르는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역사(25.2%), 철학(14.7%)**이 상대적으로 많음.

- 사전에 관련 자료를 탐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77.3%)**, 직장/1회성 프로그램의 한계 극복 위한 사전 준비 강화 필요
-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 공통적 문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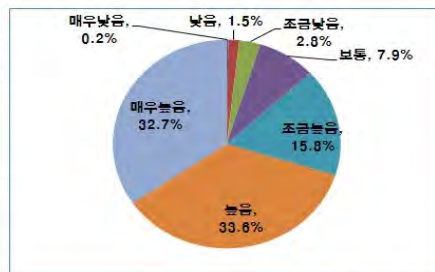
2-3. 직장인 인문학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프로그램 요소별 만족도



- 요소별 만족도는 **72-77점** 수준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진행일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개선 필요

◆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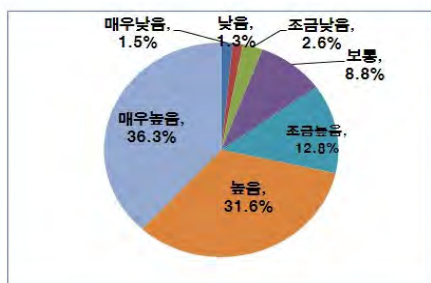
- 전반적 만족도는 89.6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 응답은 4.5%에 불과
- 기대와 수요는 높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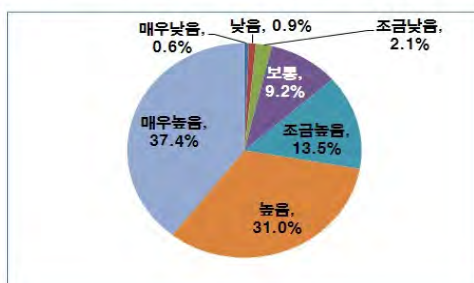
2-3. 직장인 인문학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의향은 **89.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인문학에 대한 높은 기대/수요 나타냄.

◆ 인문학 프로그램 주변 권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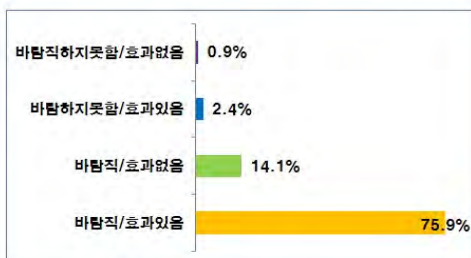
- 주변 권유의향은 **91.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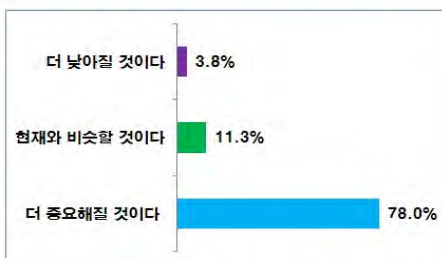
2-3. 직장인 인문학 참여자 설문조사 (중간)분석

◆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에 대한 인식



-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5.9%**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인문학의 가치에 대한 예상



- 향후 인문학의 가치가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란 의견이 **78%**로 매우 높음

29



Ⅲ.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Ⅲ.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수요 및 성과

성과 및 문제점

- 길 위의 인문학에 대한 전반적 수요와 가치는 확대 전망
- 도서관/직장인 프로그램 모두 향후 참여의향, 권장의향 높음.
- 만족도가 낮은 개인, 직장인의 경우에도 참여/권장의향 높음.
- 기대대비 만족도, 참여후 효과 등이 대부분 높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중
- 도서관 이용증대, 공동체성 강화 등에서 특히 높은 효과

개선 방안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매년 각 도서관 사업공모 방식에서 우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 지원방식 개선 검토(실제 사업선정후 일부 도서관은 계획 변경)
- 특별 프로그램도 연초에 일괄 계획 또는 공모 추진 필요

31



III.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주제/대상의 변화와 기획력 제고

성과 및 문제점	● 2015년과 비교하여 주제/대상 다양화 • 문학, 역사, 철학, 자연/환경, 예술 등 기본 주제 이외에 과학/미래, 융합, 진로/글쓰기 등 주제 및 참여자 다양화 ● 세부적인 참여대상의 제한 및 일반적 주제의 확대 • 참여대상을 특정한 경우가 제한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음. • 일반적 주제가 지역적 주제보다 3배 이상 높음.
개선 방안	● 주제/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세부주제 및 내용 개발 • 자유학기제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특화하면서도 맞춤형 주제 및 진행내용은 미흡하므로 대상/지역에 맞는 주제 개발 강화 • 일반 주제의 경우 대상/지역에 따른 내용 특화 반드시 요구 • 기획력 제고를 위한 관계자 사전 기획/진행 워크숍 강화, 강사풀 등 بانک 개발

32



III.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 강연/탐방 등 진행지침의 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성과 및 문제점	● 상당수가 강사 선정후 강연/진행내용은 강사에게 일임하여 편차가 심하게 발생[특히 직장인 인문학] • 강사에 따라 만족도의 편차가 심하거나, 일부 강사의 경우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 단순한 지식의 전달, 지루한 텍스트 강의, 후속 모임 등에서 질문/토론이 적거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 등 • 관련 주제도서 소개, 사전 주제도서 읽기, 진행중 읽기/탐구 미흡
개선 방안	● 강사의 자율성/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지침 개발 요청 • 지식전달이 아닌 인문학적 가치, 태도, 지역사회, 실생활과의 연계 등을 강연내용에 요청 • 참여자의 수요가 높은 소통, 시청각 자료 활용, 주제에 맞는 질문과 답변/소통 등 확대 • 대상자 특성에 맞는 강연자료, 강연/탐방 진행

33



III.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성과 및 문제점

- 프로그램 진행 전후, 참여자에 대한 사업의 가치/홍보 미흡
 - 사업홍보는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고, 특히 직장인 인문학은 사회자의 단순 나레이션 수준으로 홍보효과 매우 낮음.
 - 후속모임이 강연/요약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참여자 이외에도 홈페이지/건물 외부 등에 홍보 부족
 - 직장인 인문학은 대부분 외부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음.

개선 방안

- 참여자 이외에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2016년은 단체참여가 확대되어 홍보 강화 필요
 - 직장인 인문학의 경우 외부 홍보 강화를 통한 사업 자체 홍보
 - 후속모임 참여 유인 및 내실화(토론, 성찰, 적용, 지속성 등)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홍보를 위한 표준 내용/영상홍보를 개발 추진

34



III.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 직장인 인문학 사업의 성과 및 확산

성과 및 문제점

- 인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대행업체에 거의 전적으로 일임하여 주제 및 강사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불만족도가 높음.
- 동일한 강사가 같은 주제로 다른 기업대상 강연으로 맞춤형 부족
- 일부 사회자의 경우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히려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진행하거나 불만족 요인
- 사내교육 형식으로 강제 참여가 많고, 주제 관련 사전 준비/책 읽기 등이 부족하여 자발적인 참여자 확대 방안 필요
- 지역전체가 아닌 특정 영리기업 대상 행사는 지속성에 한계

개선 방안

- 주제 및 강사 선정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만 업체에 위탁 검토
- 점심시간 등 업무시간 보다는 퇴근 시간 이후/업무중에 진행 확대로 자발성과 토론 확대
- 강사 및 사회자에 대한 지침/사전 준비모임과 확인 필요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소개 및 홍보
- 지속성을 위한 간접지원, 부분지원, 인근 회사 공동진행,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35



III.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지속성 제고

성과 및 문제점	• 단년도 주관기관/운영단체(도서관) 공모방식으로 지속성/중기기획에 구조적인 제약 • 사업중심 추진으로 인문학진흥 전체에 대한 전략과 추진체계 미흡 • 4년차에 들어서면서 심화과정에 대한 수요 확대 • 참여자가 주부, 고령층, 도서관 회원의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남 [야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유사 현상]. • 참여자의 적극적 과정참여, 후속활동 참여 등 선순환구조 미흡
개선 방안	● 사업위주의 추진에서 전략중심으로 전환으로 인문학 확산 • 다양한 인문학 사업/프로그램을 총괄 기획/지원하는 체계 구축 ● 유형/대상별 분류와 추진에서 일반/심화 과정 강화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회차별 다른 프로그램 금지, 심화과정을 중기기획으로 별도 공모 지원 검토 • 단년도 사업중심에서 우수도서관/프로그램 대상 중기기획과 지원이 가능한 체계 도입

36



메 모

.....

.....

.....

.....

.....

.....

.....

.....

.....

.....

.....

.....

.....

.....

.....

.....

.....

.....

.....

.....



메 모

.....

.....

.....

.....

.....

.....

.....

.....

.....

.....

.....

.....

.....

.....

.....

.....

.....

.....

.....

.....



메 모

.....

.....

.....

.....

.....

.....

.....

.....

.....

.....

.....

.....

.....

.....

.....

.....

.....

.....

.....

.....

우리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도서관
기원
인문학



도서관과 함께합니다

도서관인과 함께합니다

이용자와 함께합니다

생각을 함께하며, 정보공유를 함께하며, 소통을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한국도서관협회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도서관 인문학, 삶을 리드하다

- 발 행 일 2016년 10월 27일
-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
전화 : 044.203.2617 전송 : 044.203.3470
한국도서관협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홈페이지 : <http://www.libraryonroad.kr> | <http://www.kla.kr>
- 인 쇄 (주)계문사 02.725.5216